

호남학 산책

명시 초대석

호남인, 시 속에 감성을 담다



명시 초대석 호남인, 시 속에 감성을 담다

송순의 사회시	5
김인후와 유희춘의 우정시	12
김덕령의 군중시	20
박순이 이황에게 올린 애도시	29
최산두와 유희춘의 수답시	37
박상의 경물시	45
김인후의 원림시	53
위백규의 소회시	61
임억령의 누정 제영시	69



시 속에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 속에 애환이 담겨있나니

송순의 사회시

「농가의 원망〔田家怨〕」 앞부분

양식은 이미 바닥났다 하는데
새로 핀 이삭 기약하지 못한다
날마다 서쪽 언덕 나물 뜯어도
그 주린 배 채우기엔 부족하지
아이들 울음 참을 수 있다지만
늙으신 부모님은 다시 어이하리
사립문을 들락날락 해보았으나
아득히 갈 곳 어딘지 모르겠다
(이하 후략)

舊穀已云盡
新苗未可期
摘日西原草
不足充其飢
兒啼猶可忍
親老復何爲
出入柴門下
茫茫無所之

송순(宋純) 지음(『면앙집』권1)

1. 농가의 원망 소리를 듣고 지은 사회시

이 작품은 송순(宋純, 1493-1582)이 지은 것으로, 일종의 사회시라 할 수 있다. 사회시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 삶의 진솔한 모습을 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송순이 지은 「농가의 원망」은 총 24구로 이루어진 장편 고체시인데, 그중 앞부분 8구를 소개하였다. 소개하지 않은 16구까지 총 24구의 내용을 시적 화자(話者, 내레이션)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식은 다 떨어졌는데, 새로 핀 이삭은 언제 여물지 기약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날마다 나물을 뜯어먹어도 주린 배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 우는데, 그래도 이것은 참을 수 있다. 문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다. 이러한 가족들을 위해 조금의 양식이나마 구해볼 생각으로 사립문을 여러 번 들락날락 해보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다. 이때 아전들이 들 이닥쳐 세금을 바치라 뉘달한다. 아전들은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 쌀독을 들여다보지만 쌀은 다 떨어졌고, 벼를 들여다보지만 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끊어졌다. 이렇듯 아전들은 세금을 걷을 도리가 없게 되자 소리 치고 화를 내면서 아이들을 묶어 원님 앞에 바친다. 원님도 인정사정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큰 칼을 목에 씌워 골병들도록 치고 때리고..... 울음소리 자자하고, 매를 맞은 가족들 하늘 향해 “제발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쳐 보지만 이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지난해 가을에 걷은 식량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하곡(夏穀)인 보리가 채 여물지 않은 음력 4-5월 춘궁기(春窮期)를 맞이한 것을 가리킨다. 가을에 곡식을 걷자마자 그동안 내지 못한 세금 등을 내야만 했으니, 이제 수확한 곡식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얼마 남지 않은 곡식으로 겨울을 버텨내고, 이제 새로운 계절 봄을 맞이했으나 먹을 양식이 없으니 절망만이 남아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송순은 이런 보릿고개를 맞이한 어느 농가의 실상을 「농가의 원망」 작품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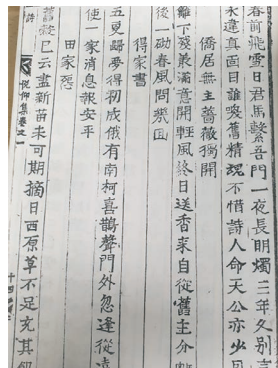


사진 1 「면앙집」 권1 소재 「전가원」 작품 앞부분

해 사실적으로 그렸다. 양식이 바닥난 상황에서 굶주림을 참아내야 하는 농가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을 댄달하는 아전과 원님. 얼마나 그 세월을 버텨내기 힘들었으면 하늘을 향해 “제발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을 외쳤겠는가. 그 절절함이 마치 전해지는 듯하다.

2.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창도자, 그리고 그 반전

근고문학(近古文學)에 있어 농암(蘆巖)과 면앙정(旼仰亭)은 가(可)히 참된 자연미의 발견자(發見者)요 또 강호가도(江湖歌道)를 창도(唱導)한 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양옹(兩翁)에 의(依)하여 창도(唱導)된 강호가도(江湖歌道)는 곧 문단(文壇)에 반향(反響)을 주어 적지 않은 영향(影響)을 문학상(文學上)에 미쳤다.

이 글은 도남(陶南) 조윤제(趙潤濟)가 1968년에 출간한 책 『한국문학사』 168쪽에 있는 내용이다. 원래 글은 한자를 노출시켰는데, 가독성을 위해 필자가 일부러 한글(한자) 형태로 수정해 적어보았다. 조윤제는 해방 이후 국문학을 연구한 초기 학자로 그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는 후배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윤제는 인용한 글에서 ‘농암’과 ‘면앙정’을 거론하였다. 농암은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호이고, 면앙정은 송순의 호이다. 조윤제는 이들을 가리켜 “참된 자연미의 발견자요 또 강호가도를 창도한 이”라고 하였다. ‘강호가도’란 무슨 말인가? ‘강호’란 자연의 다른 말이니까, 곧 작품을 통해 자연을 예찬한 것을 뜻한다. 조윤제는 이현보와 송순은 작품을 통해 자연을 예찬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선구자적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강호가도를 창도했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윤제는 왜, 송순이 강호가도를 창도했다고 말한 것인가?

송순이 태어난 곳은 전라도 담양부(潭陽府) 기곡면(鎭谷面) 두모곡(頭毛谷, 현 담양군 봉산면 상덕리). 송순은 숙부인 송흙(宋欽)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박상(朴祥), 박우(朴祐), 송세림(宋世琳) 등을 찾아가 학문을 연마하였다. 송흙, 박상, 박우, 송세림 등은 당시 잘 알려진 사림(士林)들로 이들을 스승으로 모신 것을 통해 송순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송순은 27세(1519, 중종14) 때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른다. 송순이 문과에 합격한 해인 1519년 11월에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다. 송순은 사림으로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으나 이제 막 관직에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화(士禍)에 휩쓸리지는 않았다. 그렇다 해도 젊은 사림 송순이 느낀 자괴감은 대단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처럼 27세 때부터 시작한 관직 생활은 내외직을 두루 거치면서 77세까지 이어진다. 그 사이 53세(1545, 중종40) 때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났는데, 이전 해인 52세 12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직에 있지 않아 사화를 다시 모면하였다. 이때 사림으로서 느낀 자괴감은 기묘사화 때와 마찬가지로 컸을 것이다. 이렇듯 사화를 직접 당하지 않았으나 송순은 사림으로서 불의한 사람과 늘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는 사화기이기 때문에 사림을 죽이려는 불의한 사람들은 여러 곳에 있었다. 송순은 당시 한 때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김안로(金安老)의 미움을 크게 받아 벼슬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다. 이때 송순의 나이 41세. 김안로는 누구인가? 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 등과 함께 정유삼흉(丁酉三凶)으로 불린 사람이 아닌가. ‘삼흉’ 중 한 사람으로 지목을 받았으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윤원형(尹元衡)이 실권을 쥐면서 견제를 당하였고, 58세(1550, 명종5) 때에는 진복창(陳復昌)·이기(李芑) 등에게 논박을 당해 유배를 갔다. 잠시 벼슬에서 물러나고, 견제를 당하며, 논박을 당해 유배를 간 것은 죽음에까지 이른 사림에 비하면 약한 고통이라 할 수 있으나 송순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으리라.



사진 2 면양정 전경과 그 현판(하단 오른쪽). 면양정은 송순이 지은 누정으로 전남 담양군 봉산면에 소재해 있다.

한편, 송순은 일찍이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 한 작은 터를 사두었다. 그리고 41세 때 김안로가 득세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그 미리 사두었던 터에 누정을 짓는다. 그 누정 이름은 면양정(倂仰亭). ‘면양’이란 “아래를 굽어보고 위를 우러러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누정을 축조하고 나서 이와 관련한 가사 작품 「면양정가」와 시조 「면양정단가」 및 「면양정잡가」 등을 지었으니, 송순이 면양정에 쏟은 노력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 이중 특히, 「면양정가」는 면양정 주변의 자연을 노래한 가사로, 실로 강호가도의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조운제가 송순을 가리켜 ‘강호가도를 창도한 사람’이라 지목했던 것은 면양정이라는 누정을 짓고, 아울러 그곳에 어울리는 가사 및 시조 작품 등을 지어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면양정과 가사 작품 「면양정가」, 그리고 「농가의 원망」..... 이렇듯 세 가지를 나열해놓고 보면, 송순은 분명히 ‘강호가도를 창도한 사람’ 뿐만이 아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농가의 원망」시는 사회와 가까운 것으로 강호가도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송순은 이와 같이 자연에 대한 관심도 컸으나 사회의 부조리한 면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3. 또 다른 사회시들, 삶의 애환을 담았나니

송순은 「농가의 원망」 뿐만이 아닌 「이웃집의 곡성을 듣고서」[聞隣家哭], 「거지가 부른 노래를 듣고서」[聞丐歌], 「딱다구리의 탄식」[啄木歎], 「병든 학」[病鶴] 등의 또 다른 사회시를 남겼다. 이 중에서 특히, 「이웃집의 곡성을 듣고서」, 「거지가 부른 노래를 듣고서」는 대화체 등의 수사법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지은 것으로 문학적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 또한 송순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지었다고 단정 지을 정도로 현실감이 충만한 인물이 등장한다. 「거지가 부른 노래를 듣고서」 중간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나는 일찍이 부잣집 자식이 되어	云我曾爲富家子
옷과 곡식이 농과 마당에 남았었죠	衣餘篋中粟餘場
슬하에 아들 손자, 내 곁엔 아내 있어	膝下兒孫床下妻
한 평생 남이 부러울 것이 없었답니다	人生一世無他望
이웃 친구 모아 고기 굽고 술잔 돌려	儔牛行酒聚比隣
희희낙락 웃으며 잔치 자주 벌였고	嬉嬉笑語頻開張
하느님이 좋은 팔자 주었다 말하니	謂是天公賦命好
가업이 끝없이 전하리라 자부했다오	自擬基業傳無疆

(후략)

「거지가 부른 노래를 듣고서」는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거지가 부른 노래 소리로부터 작품은 시작하고 있다. 잠에서 아직 깨지 않은 꼭두새벽에 거지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 그 사연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자 하니, 거지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감 없이 고하였다. 인용한 시 내용을 보면, 거지

는 본래는 부잣집 자식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이러한 가업이 영원히 이어지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후략’의 한 구절 “갑자년 간에 미친 왕을 만났으니[甲子年間遇狂王]”라는 내용을 통해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갑자년’은 1504년(연산군10)을 가리키며, 그 해에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났다. 갑자사화로 인해 사람들이 화를 당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왕의 실정(失政)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 그러니 부잣집조차도 그러한 실정을 견디지 못해 결국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유랑민(流浪民)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다. 「거지가 부른 노래를 듣고서」는 연산군 때 갑자사화로 인한 실정 때문에 부잣집 아들이 거지로 전락해 유랑민이 된 사연을 적은 작품으로 송순 사회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송순은 27세 때 과거시험에 급제한 뒤에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사실 내직에 있을 때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즉, 외직에 나가봐야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

48세(1540) 때 경상도 관찰사, 50세 때 전라도 관찰사, 51세 때 광주 목사(光州牧使), 56세 때 개성부 유수, 61세 때 선산 도호부사 등을 역임했던 송순. 송순은 이러한 일련의 외직을 거치면서 백성들이 어떤 애환을 지니고 사는지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시로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송순을 ‘강호가도를 창도한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면(裏面)까지 다 들여다보아야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송 순, 『면앙집』
임형택, 『조선시대 서사시』 상, 창작과 비평사, 1992.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68.

거리는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김인후와 유희춘의 우정시

① 첫 번째 작품

『종산 유배지의 유미암에게 화답하다〔奉和柳眉巖鍾山謫所〕』

아름다운 미암 친구여	有美眉巖子
어이해 그럽게 만드는가	胡然使我思
어느 때 한 곳에 어울려	何當共一榻
책 펴고 세밀히 밝힐는지	開卷析毫釐

김인후(金麟厚) 지음(『하서전집』 권5)

② 두 번째 작품

『하서 김인후 시에 화답하다〔和金河西麟厚韻〕』

북쪽에 문안할 사람 없어	塞北無人問
나는 하서만 생각 합니다	河西獨我思
새로운 시 삼백 글자는	新詩三百字
먼데서 부친 미세한 대화	遙寄話毫釐

유희춘(柳希春) 지음(『미암집』 권2)

1. 김인후와 유희춘이 주고받은 우정시(友情詩)

이 두 작품은 김인후(1510-1560)와 유희춘(1513-1577)이 마음을 주고받은 우정시이다. 두 사람의 나이를 따져보면, 김인후가 세 살 더 위니까 선배와 후배가 나눈 대화라고 할 수 있다. ①의 김인후가 지은 시 제목에서 말한 ‘종산’은 함경도 종성(鍾城)의 또 다른 이름이다. 유희춘이 종성으로 유배가 있던 시절에 김인후가 시를 써서 보냈고, 이어서 유희춘이 김인후 시에 화답한 작품이 ②이다. 그런데 ①과 ②시제에 모두 ‘화답’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다. 유희춘이 종성으로 유배 갔던 때는 1547년(명종2)이었다. 종성은 한반도의 북쪽 끝인데, 그 고된 유배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갑갑하고 외로웠을 것이다. 특히, 자신을 잘 알아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으니,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삭막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유희춘은 유배 간 10년 뒤 어느 날 멀리 전라도 장성(長城) 고향 집에 있을 김인후에게 안부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다 김인후의 주옥같은 장편시 10여 수를 받아 근심을 잊고 싶다는 내용을 적었다. 유배 가기 전까지 동문이요, 사돈 사이가 된 김인후. 유희춘이 생각했을 때 김인후는 어느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아주는 진정한 사람이라 생각하였다. 때문에 시를 지어 보내달라는 부탁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 ‘장편시’는 아마도 율시(律詩)를 말한 듯하다. 유희춘의 편지를 받은 김인후는 유희춘이 바라던 대로 시 10여 수를 지어 보낸다. 비록 유희춘이 바라던 장편시가 아닌 절구(絶句)의 단편시에 불과했지만 아쉬운 대로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에 부족하진 않았다. 두 시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인후는 유희춘을 가리켜 ‘아름다운 친구’라 말하며, 왜 이리 그림계 만드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지난 과거처럼 한 곳에 모여 학문을 논의할

수 있을지를 또 다시 물었다. 이어서 유희춘은 북쪽에 문안할 사람이 없어 자신은 김인후만 생각하는데, 마침 부쳐온 단편의 10여 수는 터럭 끝과 같은 미세한 대화인 듯하다라고 말하였다.

오히려 서로 잘 아니까 긴 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찰막한 수창(酬唱)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2. 김인후와 유희춘, 동문에서 사돈이 되기까지

김인후의 호는 하서(河西) 또는 담재(湛齋)이고, 본관은 울산(蔚山)으로, 전라도 장성 대맥동(大麥洞)에서 태어났다. 김인후는 어려서부터 영특한 아이로 소문이 났다. 김인후가 10세 되던 해 어느 날 당시 호남 관찰사로 부임해왔던 김안국(金安國)이 몸소 대맥동 집에게까지 찾아왔다. 어린이 김인후가 영특하다는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김안국은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도학에 통달한 사림파의 선구자이다. 곧,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 그러한 김안국이 김인후를 만나러보러 직접 대맥동까지 간 것이다. 아마도 김안국은 김인후에게 학문에 관한 여러 가지를 물었을 것이며, 김인후는 김안국에게 묻는 것에 대해 대답을 잘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김안국은 김인후의 학문적 수준이 여느 아이들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알고 칭찬하며 “이 아이는 나의 소우(小友)이다.”라고 말하였다. ‘소우’란 나이가 어리지만 벗으로 삼을 만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 김인후는 김안국을 찾아가 뵈고 『소학』을 배웠다. 『소학』은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며 지켜야 하는 기본적 도덕을 내용에 담은 책으로, 당시 사람들이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김인후가 김안국에게 『소학』을 배웠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는 인생의 좌

표를 알려준 것으로 주목할 부분이다.

이후 18세(1527, 중종22)가 된 김인후는 1519년 기묘사화를 겪고 화순 동북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최산두(崔山斗)에게 찾아가 학문을 닦는다. 최산두는 그의 나이 18세 때 순천으로 유배 간 김굉필에게 학문을 닦았던 사림으로, 기묘사화 여파로 동북현에 유배를 갔다가 그곳에서 은둔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인후가 최산두를 찾아간 때는 기묘사화가 발생한 지 8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김인후는 이 무렵 최산두 문하에서 유희춘을 만난다. 다시 말해 김인후와 유희춘은 최산



사진 1 김인후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필암서원 입구 전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소재해 있으며, 사적 제242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진 2 유희춘의 고전적을 보관했던 모현관 전경. 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에 소재해 있으며, 보물 제260호로 지정되어 있다.

두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으니 두 사람은 동문이 된 셈이다. 유희춘은 누구인가? 호는 미암(眉巖)이요, 본관은 해남(海南)으로, 해남에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는 최부(崔溥)이고, 아버지는 유계린(柳桂隣)이며, 형은 유성춘(柳成春)이다. 최부와 유계린, 유성춘은 모두 당대 잘 알려진 사림파의 일원으로, 또한 사림파의 한 사람인 최산두를 찾아가 학문을 익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와 같이 김인후와 유희춘은 최산두를 같은 스승으로 모신 동문으로 끈끈한 우정을 간직하였다. 이후 김인후가 그의 나이 34세(1543, 중종38) 때 옥과 현감(玉果縣監)이 되어 현지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유희춘이 서울에서 고향에 내려가다 들러 주자(朱子)가 지은 『효경간오』 한 짚을 보여주었는데, 김인후가 손수 베껴 두었다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동문으로서 맺어진 우정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인후와 유희춘은 이후 성균관에서 다시 만난다. 이때 겪었던 일과 관련해 다음의 미담(美談)이 전한다.

김하서가 급제하기 이전, 성균관에 있을 때였다. 그때 전염병에 걸려 위독하니 사람들이 감히 돌보지 못하였다. 미암 유희춘이 당시 성균관의 관원으로 있었는데 그의 사람됨을 애석히 여겨 자기 집에 메어다 두고는 밤낮으로 돌보아 끝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하서는 이를 감사하게 여겼다. 뒷날 미암이 종성으로 유배되었을 때, 하나 있는 자식이 매우 어리석었다. 하서가 그를 사위로 맞으려 하자 온 집안이 모두 찬성하지 않았지만 듣지 않고 끝내 혼인을 치르니, 사람들이 하서와 미암을 모두 훌륭하게 여겼다.

(허균, 『성소부부고』 권23, 『성옹지소록 중(惺翁識小錄中)』,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참조)

이 미담은 여러 책에 전하고 있는데, 다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김인후가 과거시험에 급제하기 이전에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 무렵 김인후는 전염병에 걸려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이 자신에게 병이 옮길까 두려워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이때 당시 성균관 관원으로 있던 유희춘이 김인후를 불쌍히 여겨 자기 집에 데려다 간호를 하여 마침내 병이 나았다. 하마터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던 김인후 입장에서 유희춘은 생명의 은인이었다. 따라서 이후 김인후는 유희춘에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1547년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 여파로 유희춘이 종성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김인후는 한 가지 일을 제안한다. 즉, 김인후 자신의 3녀와 유희춘의 아들 경렴(景濂)을 혼인시키자고 한 것이다. 김인후 입장에서 보자면, 경렴은 못나고 자신의 딸 3녀와 나이 차이도 상당하여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그래도 김인후는 유배 길에 오르던 유희춘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멀리 귀양 가고, 처자식은 의지할 곳이 없으니, 그대의 어린 아들을 내 마땅히 데려다 사위로 삼을 것이네. 염려하지 말게.”라고 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하자 김인후의 온 집안사람들은 찬성하지 않았다. 유희춘이 기약 없는 유배를 가게 되었으니 가세(家勢)가 기울 것은 분명하고, 사위로 삼으려고 한 경렴은 나이도 딸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그리 똑똑한 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김인후는 집안사람들의 반대를 뒤로 한 채 그 혼사를 단행하였다. 위 인용 부분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하서와 미암을 모두 훌륭하게 여겼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우정이 계속 이어진 것에 대한 찬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김인후와 유희춘은 같은 스승 아래의 동문으로 만났다가 사돈의 인연까지 이어진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

3. 살아서의 우정 죽어서도 이어지고

김인후는 그의 나이 51세(1560, 명종15) 1월에 생을 마감한다. 이때 유희춘은 아직 유배가 풀리지 않아 종성에 있었다. 유희춘은 유배지에 서 김인후의 부음(訃音)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흘러간 지난날을 떠올리며 김인후의 죽음을 위로했을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이 있었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그 느낌은 남달랐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희춘은 종성 유배 시절에 자식과 손자를 위해 「경륜을 보내고 아울러 계문에게 보이다〔送慶連兼示繼文〕」라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시 내용을 보면, 마지막 구에서 자신과 김인후의 근원을 이을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남으로 가는 아이 보내고 손자에게 보이니	送兒南去見吾孫
도를 깨쳐 소 엿보며 골짜기에 움츠린다	聞道窺牛當谷躡
멀리까지 크나큰 벼루와 먹을 보내나니	遠貽硯墨規模大
두 할아버지의 근원 이을 줄 알아야 한다	知爾應承二祖源

유희춘 지음(『미암집』 권2)

1구에서 말한 ‘남으로 가는 아이’는 아들 경륜을 가리키고, ‘손자’는 경륜과 김인후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계문, 즉 광선(光先)을 말한다. 2구는 어느 정도 학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뜻으로, 손자 광선에게 격려의 말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선물로 벼루와 먹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두 할아버지의 근원을 이으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두 할아버지’는 유희춘 자신과 김인후를 두고 말한 것으로, 사람으로서 후손들이 그 맥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한 것이다.

유희춘은 그의 나이 55세(1567, 명종22) 때 유배에서 풀려 다시 벼슬



사진 3 필암서원 입구 오른쪽에 세워진 표지석. 필암서원은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라는 명칭으로 다른 8곳의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이를 기념해 표지석을 세웠다.

에 올랐다. 근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 복직된 것이다. 유배가 풀리자 여기저기 갈 곳이 많았을 것이다. 그 중에 물론 김인후의 묘소에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희춘은 죽기 직전 근 10년 동안 일기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암일기』이다. 그 일기 1568년 1월 12일과 13일의 기록을 보면, 유희춘이 장성에 있는 김인후의 집과 집에서 2리쯤 떨어진 김인후의 묘소에 가서 음식을 차려 올리고, 제문을 읽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제문이 전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살아서의 우정이 죽어서까지 이어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후, 『하서전집』
유희춘, 『미암집』
허균, 『성소부부고』

임진왜란 호남 의병장이 꿈이란……

김덕령의 군중시

「군중에서 짓다〔軍中作〕」

거문고와 노래는 영웅이 할 일이 아니니	絃歌不是英雄事
칼춤 추며 모조록 옥 장막에서 놀아야지	劍舞要須玉帳遊
훗날 전쟁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佗日洗兵歸去後
강호에서 낚시질 외에 또 무엇을 바랄까	江湖漁釣更何求

김덕령(金德齡) 지음(『김충장공유사』 권1)

1. 김덕령이 지은 군중시(軍中詩)

이 작품은 김덕령(1567-1596)이 지은 군중시이다. 군중이란 군대가 집결해 있는 곳을 뜻한다. 따라서 김덕령이 지은 군중시는 군대와 관련되는데, 그 지은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을 할 무렵에 지은 작품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시의 전체 분위기를 살펴보면, 무장(武將)으로서 호기로움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어느 누구라도 간직할 수 있는 소박한 꿈을 꾸었음을 알 수 있다. 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문고를 쳐고 노래 부르는 일은 영웅이 할 일이 아니니, 장수라면 칼춤을 추면서 꼭 반드시 옥과 같이 견고한 장막에서 놀아야 한다. 나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강호에서 물고기 낚는 것 외에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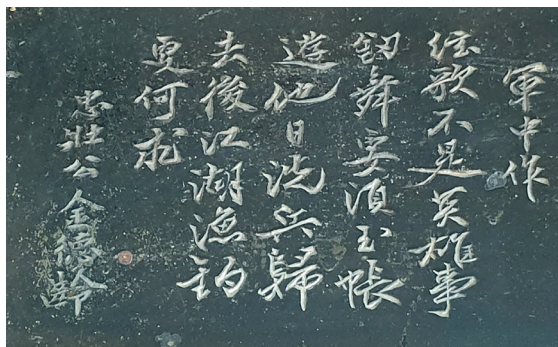


사진 1 휘가정에 걸려 있는 「군중자」시. 휘가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에 소재해 있다.

그 무엇을 바라겠는가.

1,2구에서 무장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주로 말하였고, 3,4구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강호에서 물고기나 낚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꿈을 언급하였다. 꿈이란 앞으로 실현하고 싶은 희망 또는 이상을 뜻한다. 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한자어로 ‘포부(抱負)’와 ‘야망(野望)’이 있다. 사전을 참고해보면, 포부는 마음속에 지닌 앞날에 대한 훌륭한 계획을 뜻하고, 야망은 앞날에 큰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뜻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덕령이 꿈은 포부인가? 야망인가? 당연히 포부에 가깝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꿈은 잘 이루어졌던가? 물음을 던져본다.

2. 너무나 아쉽게 빨리 좌절된 꿈

김덕령의 자는 경수(景樹)이고,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광주 석저촌(石底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봉변(鵬變)이고, 어머니는 남평반씨

이다. 석저촌은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을 말한다. 1788년(정조 12) 정조는 김덕령과 그의 부인 홍양이씨, 형 덕홍(德弘)·동생 덕보(德普)의 충효 정신을 기려 ‘충효 마을’의 이름을 하사했는데, 이로써 석저촌의 이름이 충효리로 바뀐 것이다.

김덕령은 여덟 살 때 종조부 사촌(沙村) 김윤제(金允悌)에게서 처음 글공부를 시작하였다. 김윤제는 나주 목사를 역임하였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 담양에 소재한 환벽당(環碧堂)을 건립하여 주로 인재 교육에 힘을 쏟았다. 그 인재 중에 잘 알려진 사람으로는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있다. 그리고 보면, 김덕령과 정철은 김윤제를 같은 스승으로 모신 동문인 셈이다. 어린 김덕령은 용모가 준수하고 기질이 안정하여 눈의 광채가 사람을 쏘아보는 듯하였고, 십리 밖의 물건도 볼 줄 알았으며, 아이들과 어울려 놀 적에도 거동이 이상했으나 용력(勇力)을 드러내지 않아 부모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용력은 가끔 드러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니 아버지가 “용력으로 일 삼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하였다. 아버지는 아들 덕령이 혹시 용력을 믿고, 학업을 게을리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이에 김덕령은 학업에만 집중할 뿐 용력은 감추려 힘썼다. 그리고 20세 때 형 덕홍·매형 김응회(金應會)와 함께 우계(牛溪) 성혼(成渾)에게 나아가 학문을 연마하였다. 이로써 김덕령이 점차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덕령은 그의 나이 25세 때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형 덕홍과 함께 의병 수백 명을 모집해 인솔하여 전주(全州)까지 간다. 그런데 덕홍이 “나는 왕사(王事)에 죽을 것이니, 너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봉양하거라.”라고 말하며, 김덕령을 고향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한 달 뒤 덕홍은 고경명(高敬命)과 함께 금산 전투에서 싸우다 그만 죽음을 맞이하였고, 1년 뒤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 김덕령에게 불행이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국가의 환난이 지속되고 있던 때에 형이 의병 활동을 하다 죽고, 게다가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김덕령의 마음은 이

루 말할 수 없이 아렸을 것이다. 이때 김응회와 송제민(宋齊民)이 김덕령에게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유한다. 송제민은 동향(同鄕) 사람으로 김덕령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비록 김덕령이 상중(喪中)에 있으나 적을 무찌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의병 일으킬 것을 권유했을 것이다. 김덕령은 처음에 “효를 굽혀 충을 펴기가 곤란합니다.”라는 말을 하며, 김응회와 송제민의 제안을 거절한다. 하지만 이때 담양 부사 이경린(李景麟)과 장성 현감 이귀(李貴)가 서로 글을 올려 김덕령을 천거하였다. 때문에 김덕령은 처남 이인경(李寅卿)과 함께 담양에서 의병 5,000명을 모집하여 도내 여러 고을에 격문을 보낸다. 이제 김덕령은 의병장으로서 왜적에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춘 것이다. 일찍이 조선후기의 문신 서하(西河) 이민서(李敏叙, 1633-1688)는 『김장군 전(金將軍傳)』을 지은 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김 장군’은 바로 김덕령을 가리킨다. 의병장 김덕령이 전쟁터에서 벌인 활약상을 적은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원수(元帥, 권율(權慄)을 말함)는 영남에 있으면서 그 군대를 초승군(超乘軍)이라 표방(標榜)하였다. 세자(世子, 광해군)는 전주에 있으면서 장군의 의병을 일으킨 소식을 듣고 ‘익호 장군(翼虎將軍)’이란 칭호를 내렸다. 이듬해에는 선조께서 사신을 보내 칭찬하고, 또 군호(軍號)를 ‘충용(忠勇)’이라고 하사했다. (중략) 왜적이 장군의 위세를 떨치는 명성을 듣고 ‘석저 장군(石底將軍)’이라 부르며, 벌벌 떨고 감히 기를 펴지 못하였다. 적장 가등청정(加藤清正)은 몰래 화공(畵工)을 보내 장군의 형상을 그려 오라고 하여 그 그림을 보면서 이르기를 “참으로 장군이로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병졸을 거두어 노략질을 못하게 하는 한편, 여러 곳의 작은 진지를 철수시키고 병졸을 규합하여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민서, 『서하집』 권14, 『김 장군 전』 일부분.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참조)

이 글을 보면, 당시 원수 권율은 김덕령이 이끈 의병군을 ‘초승군’이라 표방하였고, 세자 광해군은 ‘익호 장군’이란 칭호를 내렸으며, 선조는 ‘충용’이라는 군호를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초승’이란 군사들이 날쌔서 말에서 내렸다가 뛰어서 탄다는 뜻이고, ‘익호’란 날개 달린 호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두 김덕령의 용감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거는 기대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왜적들은 김덕령을 가리켜 ‘석저 장군’이라 했는데, 그 이름만 듣고서도 벌벌 떨고 기를 펴지 못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또한 적장 가등청정은 몰래 화공을 보내 김덕령의 형상을 그려오도록 하여 그 그림을 보고서 ‘참 장군’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나온다. ‘석저’와 관련해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기록을 보면, “왜놈들이 듣고 몹시 두려워하여 ‘석저 장군’이라고 불렀으니, 대개 석저가 마을 이름인 줄 모르고 돌 밑에서 나온 줄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다. ‘석저’는 돌 석(石) 자와 밑 저(底) 자가 합해진 한자어인데, 왜적들은 이것을 김덕령의 출생지라 생각하지 않고, 한자 그대로 풀이했던 것이다. 김덕령이 그만큼 두려운 사람으로 각인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하니 의병은 물론이요, 관군과 중국 군사들도 김덕령을 모두 의지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조정에서 강화를 논의하며, 여러 장군들에게 교전을 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 김덕령은 진주에 주둔해 있으면서 여러 차례 싸울 것을 요청했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때마침 김덕령을 시기하고 공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한 이어서 이몽학(李夢鶴)이 호서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다 죽었는데, 그때에 “김(金)·최(崔)·홍(洪)이 함께 반역하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김’은 김덕령을 가리키고, ‘최’는 김덕령의 별장(別將)인 최담령(崔聃齡)을, ‘홍’은 장사 홍계남(洪季男)을 각각 지칭하였다. 김덕령은 이와 같이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 여러 차례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그 억울한 마음을 아무리 하소연해본들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선조



사진 2 충장사 뒤쪽 산에 자리한 김덕령 의병장의 묘. 충장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에 소재해 있는 사당으로, 1975년 김덕령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웠다.

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고, 신하들도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던 중에 엄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여 감옥에서 세상을 뜨니, 이때 김덕령의 나이 만 29세였다. 김덕령이 죽었다는 소식은 물론 왜적에게까지 알려졌다. 소식을 들은 왜적들은 술을 마시며 기뻐 뛰면서 “호남과 호서는 걱정 없다.”는 말을 했다 하니, 그들에게 김덕령이 어떤 존재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억울하게 30세도 되기 전에 세상을 끝마쳤으니 너무나 아쉽게 빨리 생을 마감한 것이다. 김덕령은 「군중작」 3~4구에서 말한 것처럼 “훗날 전쟁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강호에서 낚시질 외에 또 무엇을 바랄까”라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작은 바람마저 이룰 수 없게 되었다.

3. 권필의 꿈에서 부른「취시가」의 의미는?

김덕령은 세상을 떠나고, 7년 동안 이어진 임진왜란도 이제 끝이 났다. 당대의 문필가로 유명한 석주(石洲) 권필(權鵬, 1569-1612)이 어

느 날 잠을 자다가 김덕령의 시집을 얻는 꿈을 꾸었다. 그 시집의 첫 번째로 놓인 작품은 「취시가(醉時歌)」였다. ‘취시’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을 하여 시절을 한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상적인 정신으로 말할 수 없기에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세를 하며, 시절을 비판한 것이다. 일찍이 당나라 때 두보(杜甫)도 「취시가」라는 작품을 남겼고, 이후 다른 문인들도 같은 제목의 시를 남겼으니, 그 역사는 짧지 않다. 그렇다면 권필의 꿈속에서 김덕령이 부른 「취시가」의 내용은 어떠한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해 부른 노래여	醉時歌
이 곡조 듣는 사람 없구나	此曲無人聞
나는 화월에 취하고 싶지 않고	我不要醉花月
나는 공훈을 세우고 싶지 않다	我不要樹功勳
공훈을 세우는 것은 뜬구름이요	樹功勳也是浮雲
화월에 취하는 것도 뜬구름이라	醉花月也是浮雲
술에 취해 부른 노래여	醉時歌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으니	無人知我心
장검으로 명군 모시길 바랄 뿐이다	只願長劍奉明君

(권필, 『석주집』 권7)

이 노래의 요점은 화월에 취하고 공훈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월에 취하고 공훈을 세우는 것은 모두 뜬구름과 같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쓸모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검으로 훌륭한 군주를 모시고 싶다고 하였다. 이는 「군중작」에서 말한 꿈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나 어느 면에서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공훈을 세우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나라에 충성할 뿐 어떤 다른 것을 바

란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취시가」를 들은 권필은 시를 지어 김덕령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으니, 비록 현실은 아니나 두 사람이 서로 진정한 소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필은 송제민의 만사위이다. 송제민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김덕령에게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유했던 사람이 아닌

가? 때문에 김덕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어느 누구보다 심히 슬퍼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담아 「와신기사(臥薪記事)」를 저술하였는데, 아마도 평소에 권필에게 김덕령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 했을 것이다. 권필의 꿈속에 김덕령이 나타나 노래까지 불렀으니 이러한 짐작은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1890년에 김덕령의 후손 김만식(金晩植)이 충효동에 김덕령을 위해 누정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취가정(醉歌亭)’이라 하였다. 곧, 권필의 꿈속에서 김덕령이 부른 「취시가」에서 힌트를 얻어 누정의 이름을 정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사진 3 취가정 전경과 판액. 취가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 옆 성암마을 뒷동산에 있다.

4. 죽어서 영원히 우리 곁에 남다

김덕령은 죽은 이후 60여 년이 지난 1661년(현종2)에 신원(伸寃)되어 관작이 복구되었고, 1668년 병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또한 1681년(숙종7)에 다시 병조 판서로 추증되고, 1788년(정조



광주출신 임진왜란 의병 충장공(忠壯公)
김덕령 장군의 시호를 따 충장로(忠壯路)라는
이름으로 노채필에 주창으로 바뀌었다.

사진 4 충장로 유래를 적은 알림판. 이 알림판은 충장로5가가 끝나는 지점에 있다.

12) 의정부 좌참찬에 추증되었으며, ‘충장(忠將)’이라는 시호를 내린다. 이와 같이 김덕령이 죽은 이후 나라에서는 그를 신원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였다. 또한 김덕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나 빛고를 광주를 중심으로 우리 곁에 남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내고, 광주의 중심가에 ‘충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권 필, 『석주집』
김덕령, 『김충장공유사』
김 욱, 『해동명신록』
이민서, 『서하집』

죽음 앞에서 더한 존경심

박순이 이황에게 올린 애도시

「퇴계 선생의 만시〔退溪先生挽〕」

신명의 이치는 원래부터 어둡고 아득한데
공은 어찌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하늘 한가운데에서 주춧돌을 옮긴 것이고
나라를 편히 할 진산 터가 무너진 것이라
끊어진 맥을 아, 그 뉘 이을 수 있으리요
그래도 선생이 남긴 책은 볼 수 있습니다
청량산에 남겨진 달빛의 흔적 가운데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가슴의 뜻을 보겠습니다

神理元冥漠
公胡遽至斯
中天移柱石
鎮國毀山基
墜緒嗟誰繼
遺編尚可窺
清涼一痕月
千古見襟期

박순(朴淳) 지음(『사암집』 권2)

1. 박순이 이황에게 올린 애도시

이 작품은 이황(李滉, 1501-1570)이 세상을 뜨자 박순(1523-1589)이 그 슬픔을 담아 올린 애도시(哀悼詩)이다. 시 제목 맨 마지막에 있는 한자 ‘만(挽)’은 ‘만(輓)’과 통용되는 것으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 내용을 다시 풀이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앙과 화복을 내리는 신령의 도는 원래부터 어둡고 아득한데, 이황 선생께서는 어찌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까.

선생의 죽음은 마치 하늘 한복판에서 주춧돌을 옮기고, 나라를 평안히 해 주는 진산(鎭山) 터가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끊어진 유학의 맥을 그 누가 잇겠습니까. 그나마 선생이 남기신 책을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청량산에 남겨진 달빛의 자취 속에서 시간이 오래 지난 뒤까지 선생이 가슴에 품고 계시던 취지(趣旨)를 보겠습니다.

시에서 사용한 어휘 중에 인상적인 것은 ‘주석(柱石)’이다. 이는 곧, 박순이 이항을 가리킨 말로 구체적으로는 주석신(柱石臣) 또는 주석지신(柱石之臣)이라 한다. 주석신이란 기둥과 주춧돌처럼 나라의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신하를 뜻하는데, 박순이 이항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지를 말해주는 시어이다. 또한 ‘청량(淸涼)’은 보통어로 풀이하면 ‘시원하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여기서는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소재한 청량산(淸涼山)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이항은 도산서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다가 수시로 청량산에 들어가 수도했기에 ‘청량산인(淸涼山人)’이라는 호를 얻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량’이라는 시어를 보통어로 풀이하지 않았다.

한편, 박순은 또 다른 애도시 『퇴계 선생의 만시』(『사암집』 권3)와 묘지명 『퇴계선생묘지명(退溪先生墓誌銘)』(『사암집』 권4)을 지어 이항에 대한 존경심을 극진히 나타내었다. 또 다른 애도시 『퇴계 선생의 만시』는 총 48행으로 이루어진 오언 장편시인데, 특히, 이항을 중국의 유명한



사진 1 이항의 묘소(왼쪽)와 천원 권 지폐 앞면에 있는 이항 초상화(오른쪽). 이항의 묘소는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소재해 있다. 이항 묘소 사진은 도산서원에서 제공하였다.

학자들에 대비시켜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박순은 「퇴계선생묘 지명」에서 “잘난 사람은 그의 덕을 즐거워하였고, 못난 사람은 그의 부드러움을 사랑하여 다들 우러러보고 경의를 표했다.”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이황을 존경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박순은 이황이 죽은 이후 두 편의 애도시와 한 편의 묘지명을 지어 슬퍼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한편, 존경한다는 뜻을 여실히 드러내어 후배의 소임을 다하였다.

2. 박순, 이황에게 벼슬자리 양보해 존경심을 나타냈으니

박순의 자는 화숙(和叔)이요, 호는 사암(思庵)이며,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부친은 박우(朴祐)이고, 누재(訥齋) 박상(朴祥)이 중부(仲父)이며, 나주에서 태어났다. 18세 때 진사과에 합격한 뒤에 멀리 개성에 있던 서경덕(徐敬德)을 찾아가 학문을 연마하였고, 31세(1558, 명종8) 때 장원급제하였다. 이후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여러 벼슬을 거쳐 50세 때 우의정, 이듬해 좌의정에 올랐으며, 57세(1579, 선조12) 때 영의정에 올라 64세 관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어갔다. 다시 말해 14년 동안 정승 벼슬에 있었으니, 박순에 대한 왕의 신임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황의 자는 경호(景浩)요, 호는 퇴계(退溪)이며, 본관은 진보(眞寶)이다. 경상북도 예안[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이식(李植)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34세(1534, 중종29) 때 문과에 합격한 뒤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그렇지만 이황은 벼슬살이를 하던 중에도 늘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에 몰두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관직을 받더라도 병을 핑계 삼아 사양하기를 반복하였다. 급기야 60세가 되자 고향에 도산서당을 짓고 후학을 기르고 학문을 연마하였으며, 68세(1568, 선조1) 때 선조(宣祖)에게 「무진봉사(戊辰封事)」와



사진 2 박순의 영정. 이 영정은 충주박씨 문간공문중 박종률(전 전남대 교수) 회장이 제공하였다.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제출한다. 「무진봉사」는 왕이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여섯 조항을 적은 것이고, 「성학십도」는 성왕(聖王) 및 성인이 되기 위한 유교철학 열 가지를 도설(圖說)로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2년 뒤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이와 같이 박순과 이황의 행적을 대략 적었다. 그리고 보면, 박순은 이황보다 22년 어린 후배이다. 박순은 이황이 어떤 덕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 박순의 나이 44세(1566, 명종21) 때의 일이다. 당시 박순은 부제학이 되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 안동에 있던 이황에게 편지

를 써서 조정에 나올 것을 권유한다. 박순은 대학자 이황이 조정에서 올바른 정치를 이끌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박순의 나이 45세 때 선조가 왕위에 등극한다. 선조 임금은 박순을 대제학, 이황을 제학에 임명한다. 이에 대해 박순이 다음과 같은 소신을 밝힌다.

대제학과 제학은 똑같이 관각의 직위이기는 하나 제학의 임무는 대제학의 그것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지금 신이 대제학이 되고, 이황은 제학이 되어 나이 많은 석유(碩儒)가 도리어 작은 임무를 맡았습니다. 후진 초학의 선비가 중책의 자리에 있으니, 그 소임을 갈라서 이황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암집』 권7, 「조야기문(朝野記聞)」)

박순이 이황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같은 부서에 임명된 것이다. 그런데 후배 박순이 대학자 이황보다 더 높은 직책을 맡았으니, 박순의 입장에서 민망할 뿐이었다. 따라서 박순은 이러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조에게 서로의 자리를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조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령하였고, 대신들은 박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로써 이황이 대제학이 되고, 박순은 제학이 되었으나 이황이 곧바로 사양하여 박순이 결국 대제학이 되었다. 이렇듯 박순과 이황은 후배와 선배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심히 깊었다.

이황은 이듬해 3월에 병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때 수많은 명사(名士)들이 이황을 전송하였는데, 그 속에 박순도 물론 있었다. 박순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계 선생을 전송하며〔送退溪先生還鄉〕」라는 시를 짓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슬을 펜 듯이 고향 마음 끊이지 않아	鄉心未斷若連環
말 타고 오늘 아침 한양 문을 나가신다	一騎今朝出漢關
추위 눌린 고개 매화 봄인데 피지 못해	寒勒嶺梅春未放
머문 꽃은 늙은 신선 돌아오길 기다리리	留花應待老仙還

(『사암집』 권1)

박순이 지은 시에 대해 이황도 시로 화답하기를 “물러감 허락함이 어찌 결한 내림과 같을까, 여러 어진이 환송 받으며 한양 출발한다. 스스로 은전 베풀었던 사성에 부끄러워, 공연히 구차스럽게 일곱 차례 왕복했었지.〔許退寧同賜玦環，諸賢護送出京關。自慙四聖垂恩眷，空作區區七往還。〕”라고 한다. 이제 박순과 이황은 한양에 함께 머물러 있다가 이별을 한 것이다. 이황은 고향 안동으로 돌아간 뒤 이듬해 70세

(1570, 선조3) 12월 8일에 생을 마감했으니, 박순과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었다.

박순은 한양에서 이황이 세상을 떠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한양에서 헤어졌던 이황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하니, 갑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박순은 『퇴계 선생의 만시』의 처음 부분에서 “신명의 이치는 원래부터 어둡고 아득한데, 공은 어찌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셨습니까.”라고 말한 것이다. 황망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 내용이다.

3. 조선후기 실학자 이익이 ‘사암능양(思庵能讓)’이라 극찬하다

이제 박순도 67세(1589, 선조22)를 일기로 세상을 떠다. 이황과 박순 모두 세상을 떠으나 두 사람이 서로 베풀자리를 양보한 훈훈한 일화는 후대인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였다.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은 어느 날 박순과 삼종 사이로 당시 습독관(習讀官)으로 있던 박수기(朴秀基)를 만나 박순과 이황이 남긴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세 편의 연작시를 지었는데, 그중 세 번째 시 앞부분에서 읊기를 “퇴곡 선생이 나오기 어려웠을 때에, 사암 대원로가 홀로 그를 어질다 했다.[退谷先生難進時, 思庵大人獨賢之.]”라고 하였다. 바로 박순이 그의 나이 44세 부제학으로 있을 때 이황에게 편지를 써서 조정에 나오기를 권유한 일을 말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박순과 이황의 미담은 조선후기 실학자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의 귀에까지 들어간다. 이익은 시가 아닌 문장으로 두 사람이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 제목은 ‘사암능양(思庵能讓)’이다. 풀이하면 ‘사암이 겸양에 능하다’인데, 뒷부분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우리 선조 조정에 퇴계 선생이 예문관 제학에 임명되자, 그때 대제학 박순이 “신이 주문(主文)이 되어 있는데 이황이 제학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높은 큰 선비를 도로 낮은 지위에 두고 초학자가 도리어 무거운 자리를 차지했으니, 사람 쓰는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청컨대 그 임무를 교체해 주옵소서.” 했다. 주상께서 대신들에게 의논할 것을 명령하자, 모두 박순의 말이 당연하다 하므로, 이에 박순과 서로 바꿀 것을 명령했으니, 아름다워라, 박순의 그 훌륭함이 충분히 세속의 모범이 될 만하다. 지금에는 이욕(利欲)만이 설쳐 이런 것을 보고 본받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랴. 아, 슬프다.

(이익, 『성호사설』 권12,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참조)

위 인용문 중에 “아름다워라, 박순의 그 훌륭함이 충분히 세속의 모범이 될 만하다.”라고 말한 부분에 눈길이 간다. 이익은 박순이 이황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일을 특별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나이 고하를 불문하고 남보다 무조건 높은 지위에 오르기만을 바라는데, 박순은 이와 달랐다는 것이다.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를



사진 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에 소재해 있는 박순의 묘소. 충주박씨 문간공문중 박종롤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이 제공하였다.

극진히 대할 줄 아는 박순이야말로 세속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언급하였다.

이황은 살아생전에 박순을 칭찬하기를 “박순과 상대하면 마치 한 덩이 맑은 얼음과도 같아 정신과 영혼이 아주 상쾌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얼음은 성질이 차기도 하지만 맑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황이 박순에 대해 “마치 한 덩이 얼음과도 같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박순이 맑고 깨끗한 이미지로 다가왔기 때문이리라. 한 사람은 대학자를 잘 알아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맑은 심성을 지닌 어진이를 잘 알아 보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 박 순, 『사암집』
- 이 익, 『성호사설』
- 이 황, 『퇴계집』

사제 간에 시로 쌓은 끈끈한 정 최산두와 유희춘의 수답시

① 「유미암과 함께 잔치하면서〔與柳眉巖同宴〕」

백발 문장가가 술 취해 노래 부름은	白髮文章放醉歌
잔치 자리에서 술잔을 자주 들어서라	蓋由宴席酒盃多
친구의 깊은 정이 아직도 이어지는데	雲樹深情猶未了
석양 언덕엔 꽃 지고 새가 울음 운다	落花啼鳥夕陽阿

② 「유미암이 차운한 것을 부치다〔附柳眉巖次韻〕」

시 읊는 사람 있고 노래 부른 사람 있나니	有其嘯也有其歌
맞고 보내는 정과 회포는 날마다 깊습니다	迎送情懷日夕多
동서로 나뉘어 가는 소매 붙잡지 못하오니	未把東西分去袂
훗날에 꽃이 피는 언덕에서 즐겁게 놀지요	他年花發樂遊阿

최산두(崔山斗) 지음(『신재집』 권1)

1. 최산두와 유희춘이 주고받은 수답시(酬答詩)

위의 두 작품은 스승 최산두(1483-1536)와 제자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주고받은 수답시이다. 시 제목에서 말한 ‘유미암’의 ‘미암(眉巖)’은 유희춘의 호이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 순서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본다.

① 백발의 문장가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게 된 까닭은 잔치 자리에서 술잔을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친구와의 깊은 정이 아직까지 남아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석양 언덕에는 꽃이 지고 새가 울음을 우는구나.

② 잔치가 베풀어진 이 자리에 시를 읊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있나니, 맞이하고 보내는 마음과 회포는 밤낮으로 깊습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가는 소매를 붙잡지 못하니, 훗날 꽃이 피는 언덕에서 다시 만나 즐겁게 놀기를 바랍니다.

작품 ①은 스승 최산두가 지은 것이고, ②는 제자 유희춘이 지은 것이다. 두 작품을 총괄하여 읽어보면, 이별을 하는 상황에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시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승 최산두는 우선 자신을 가리켜 ‘백발의 문장가’라고 하였다. 자신이 술에 취하였고, 친구와 깊은 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알렸다. 전구 원문의 ‘운수(雲樹)’는 중국 당나라 때 두보(杜甫)가 지은 「봄에 이백을 그리며〔春日憶李白〕」의 시 구절 “위북에는 봄 하늘 아래 나무요, 강동엔 저물녘의 구름이로다.〔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에서 유래하였다. 두보가 일찍이 위북(渭北)에 있을 때 이백은 강동(江東)에 있었다. 봄날이 되어 두보가 이백을 그리워하며 시를 지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위북의 상황과 함께 이백이 살고 있는 강동의 상황을 말하였다. 각 구의 마지막 한자 ‘수(樹)’와 ‘운(雲)’자를 따서 ‘운수’라는 시어가 만들어졌는데, 훗날 멀리 있는 친구를 못내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최산두와 유희춘은 30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사제지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산두는 친구라는 의미를 가진 ‘운수’라는 시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아마도 다정함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했을 것이다. 스승의 시에 대해 제자 유희춘도 이별의 아쉬움을 드러내었는데, 마지막 구절에서 훗날 꽃 피는 언덕에서 만나 다시 즐겁게 놀자는 약속을 하였다.

사실 이 두 작품을 지은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없다. 또한 두 사람이 잠시 동안 이별한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이별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스승 최산두는 살던 곳에 그대로 남아있고, 유희춘만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스승은 남고, 제자는 떠나는 자리에서 먼 훗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는데, 과연 두 사람은 꽃이 피는 언덕에서 다시 만나 술자리를 베풀었을 것인가? 의문을 품어본다.

2. 최산두의 동복 유배, 그리고 김인후·유희춘과의 만남

최산두의 자는 경양(景仰)이요, 호는 신재(新齋) 또는 나복산인(蘿菴山人)이며, 본관은 광양(光陽)이다. 8세 때 별써 「영우두(詠牛頭)」라는 시를 지어 문학적 재능을 뽐냈으며, 18세 때 당시 순천으로 유배 온 김굉필(金宏弼)을 찾아가 뵙고 공부하였다. 김굉필은 1498년에 일어난 무오사화 당시 평안도 희천(熙川)으로 유배되었다가 2년 뒤에 전라도 순천(順天)으로 유배지가 옮겨졌는데, 당시 광양에 살던 최산두가 찾아갔던 것이다. 이어 19세(1501, 연산군7) 때 상경하여 조광조(趙光祖)·한충(韓忠)·김정(金淨)·김안국(金安國) 등과 함께 매일 서로 방문하여 경학을 강구하니 당시 사람들이 ‘낙중군자회(洛中君子會)’라고 불렀다. 그리고 22세 때 「강목부(綱目賦)」를 지어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그런데 이해에 갑자사화가 일어나 스승 김굉필이 순천에서 서울로 이송되어 효수(梟首) 당하자 세속을 떠나 승주의 송광면에 소재한 천자암(天子菴)에 머물며 학문을 연마한다. 최산두는 이 천자암에서 9년 동안 머물다 31세 때 과거시험에 응시해 당당히 문과에 합격한다. 이후 32세 때 홍문관 저작을 시작으로 박사, 사간원 정언, 홍문관 부수찬, 사헌부 지평, 헌납, 홍문관 수찬, 예조 정랑, 의정부 사인 등 37세 때 11월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벼슬을 이어간다. 이 무렵부터 ‘호남

삼걸두구춘(湖南三傑斗衢春)’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해남의 윤구(尹衢)·유성춘(柳成春) 등과 함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최산두는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당시에 의정부 사인이었다. 그리고 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등이 유배를 갔을 당시만 해도 어떤 형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사화가 일어난 한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화를 주동한 사람들이 인사권 및 경찰권의 핵심을 다 장악했으며, 이어서 대사헌에 이항(李沆), 대사간에 이빈(李蘋)이 올랐다. 조광조가 주장한 모든 개혁들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에 더하여 조광조를 죽이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항·이빈이 합계(合啓)하여 총 36명의 명단을 써서 죄 줄 것을 중종에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최산두는 동북현(同福縣)에 유배 가기에 이른다. 동북현은 지금의 전남 화순군 동북면·이서면·북면·남면 일대에 있던 옛 고을을 지칭한다. 기약 없는 유배가 시작된 것이다.

동북현으로 유배 간 최산두는 이듬해인 38세 12월에 부친상을 당한다. 이후 인근에 사는 유망한 인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특히 김인후(金麟厚, 1510~1560)와 유희춘이 있었다. 김인후의 이때 나이는 대략 18세였고, 유희춘은 15세였다. 이때 최산두는 미래가 밝은 두 사람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다음의 최산두 「행장」을 통해 그가 동북현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다.

선생은 평소 충효로써 자신의 임무를 삼고 정주학(程朱學)을 학문의 목적으로 삼았다. 법도가 엄정하여 움직이면 문득 법도에 맞아 갑자기 옆에 진다 해도 오히려 『주역』을 강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또 후진들을 보면 힘써 바른 길을 가르쳐 인도하였다. 이때에 하서(河西) 김문정(金文正)과 미암(眉巖) 유문절(柳文節)은 학문이 천인(天人)의 오묘함에 깊었으나 오히려 또한 바른 데로 나아가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흠집과 나물국을 먹으며 살살이 정밀히 분석해 추환(芻豢)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대체로 문

사(文辭)와 유상(游賞)을 삼가 숭상한 것은 아니나 때때로 지팡이와 신발을 끌고 물염정(勿染亭)과 적벽(赤壁)의 사이를 소요했으니, 또한 옛사람이 이른바 ‘강호의 근심’이라는 것인가.

(최산두, 『신재집』 권3, 「행장」 일부)

최산두의 평소 삶의 자세와 함께 학문을 대하는 태도 등을 언급하였고, 후진들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였다. ‘하서 김문정’은 김인후를, ‘미암 유문절’은 유희춘을 가리킨다. 즉, 김인후와 유희춘을 들면서 이들은 학문이 천인의 오묘함을 얻을 정도로 깊었으나 바른 데로 나아가기를 그만두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소박한 삶을 살면서도 학문을 정밀히 분석해 마치 고기 음식을 먹는 것처럼 했다고 하였다. ‘추환’은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각기 초식(草食) 가축과 잡식(雜食) 가축으로 맛있는 고기 음식을 뜻한다. 또한 글을 짓고, 놀면서 구경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으나 가끔 지팡이와 신발을 끌고 물염정과 적벽 등을 소요했다고도 하였다. 물염정의 ‘물염’은 ‘속세에 물들지 말라’는 뜻



사진 1 물염정 전경. 물염정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에 소재해 있다. 최산두는 이 물염정 주변을 소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 지니고 있는데, 성균관 전적 및 풍기 군수 등을 역임한 송정순(宋庭筍, 1506-1544)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벽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동북천 동안에 위치한 절벽으로, 원래 석벽(石壁)이라 불렸는데, 최산두가 적벽이라 명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은 그의 나이 42세(1574, 선조7)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무등산을 유람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적벽도 다녀갔다. 고경명은 이때 다녀갔던 곳을 세세히 기록하여 『유서석록(遊瑞石錄)』이라는 4,800자의 방대한 유산기를 남겼는데, 적벽을 최산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사인 최신재가 종종 때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이 고을로 유배되었는데, 하루는 손님과 동반하여 달천(達川)에서부터 물의 원류를 더듬어 이 명승을 찾게 되었다. 이에 남방 사람들이 비로소 적벽을 알게 되어 시인 묵객의 노는 자취가 잇달게 되었으니 임석천(林石川)이 명(銘)을 짓고 김하서(金河西)가 시를 지어 드디어 남국의 명승지가 되었다. 아, 무창(武昌)의 적벽은 황강(黃岡) 만 리 밖에 있어 남만지대(南蠻地帶)의 안개가 자욱한 곳이었으나 다행히 소동파(蘇東坡)의 전후 적벽부에 힘입어 마침내 세상에 명성을 떨쳤다.

(고경명, 『유서석록』 중에서)

고경명은 중국 무창의 적벽은 소동파가 전후 적벽부를 지은 뒤로 널리 알려졌고, 화순의 적벽은 최산두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적벽은 감추어진 공간이라서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었는데, 최산두 덕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38세 12월에 동북현으로 유배 갔던 최산두. 그는 15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뒤 51세 때 사면되었으나 3년의 시간이 흐른 54세(1536, 중종 31) 때 그만 생을 마감한다.



사진 2 최산두 묘역 입구 표지석. 최산두의 묘는 전남 광양시 봉강면에 소재해 있다.

3. 스승 최산두에 대한 기억은 아련한데

최산두가 세상을 뜬 이듬해에 유희춘은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다음 해에 별시 병과(丙科)에 합격한 뒤 권지 성균관학유를 시작으로 벼슬 살이를 하였다. 그런데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의 여파로 결국 함경도 종성(鍾城)으로 유배를 가는 신세가 된다. 스승이 동북현에서 기약 없이 유배 생활을 했던 것처럼 제자 유희춘도 종성에서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유희춘은 유배 생활 중에도 늘 어머니와 벗을 그리워하였다. 벗 중에서 김인후는 특별하였다. 최산두 밑에서 동문수학하였고, 사돈 사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 그리운 마음은 시를 지어 수답함으로써 해소시켰는데, 그 대표 작품이 「하서 김인후의 시에 화답하다」 14수이다. 유희춘은 이 14수의 연작시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김인후에게 전달하였다. 그중 아홉 번째 작품에서 스승 최산두를 기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신재 선생님의 두세 편의 부는
동방의 옛 사람도 이르지 못하니

新齋兩三賦
東方古未到

지금도 그 넓은 마음 기억하면
가을의 팽려호처럼 넉넉해집니다

祇今想廣襟
彭蠡秋正浩

(유희춘, 『미암집』 권1, 「화김하서운(和金河西韻)」9)

유희춘은 특히, 최산두의 부(賦) 작품을 언급하였는데, 옛 사람들이 이르지 못할 경지에 이르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산두가 마치 중국의 팽려 호수처럼 넓은 마음을 간직했다고 기억하였다. 곧, 유희춘 기억 속 스승 최산두는 문장을 잘 지었으며, 넓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사진 3 광양 신재 최산두 선생 유허비. 전남 광양시 봉양사 입구에 소재해 있다. 봉양사는 최산두를 모신 사당이다.



사진 4 도원서원 전경. 도원서원은 전남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에 있는 서원이다. 1670년에 건립되었는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1976년 전라남도 유림들에 의해 복원되었다. 최산두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참고문헌

『맹자』
고경명, 『유서석록』
두 보, 『두소릉시집』
유희춘, 『미암집』
최산두, 『신재집』

호남 사림, 충북 음성 공자당에서 시를 읊다 박상의 경물시

「김공석의 새로운 당에 썼는데, 당의 모양은 ‘공’ 자이다
〔題金公碩新堂 堂形工字〕」¹⁾

‘공’ 자로 된 새로운 당은 작은 산을 등지고	工字新堂背小山
한 띠를 이룬 앞개울은 당긴 활보다 굽었다	前川一帶曲於彎
물 막은 모래 독은 용 등뼈처럼 가로 놓이고	沙堤制水橫龍脊
처마 엇갈린 새 길은 안개 낀 산까지 솟았다	鳥道交簷擢霧鬢
고르지 않은 생강 잎은 밭에서 낮게 피어나고	薑葉未齊開圃淺
겨우 나온 국화 눈은 하늘의 인색함 깨뜨렸다	菊牙纔出破天慳
반나절 동안 술잔 들고 그윽한 일을 찾으면서	把杯半日探幽事
티끌세상의 어지러운 것 모두 상관하지 않는다	塵世紛紛百不關

박상(朴祥) 지음(『눌재속집』 권1)

1. 박상이 지은 경물시(景物詩)

이 시는 박상(1474-1530)이 충북 음성군 생극면 팔성1리 말마리(秣馬里)에 소재한 공자당(工字堂)에서 지은 것이다. 두 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첫 번째이다. 굳이 시 종류를 말하자면, 경물시라 할 수 있다. 제목을 살피면, 김공석이 만든 새로운 당의 모양은 ‘공(工)’ 자인데, 거기에 시를 썼다라고 하였다. ‘공석’은 김세필(金世弼, 1473-1533)의 자이다. 그러니까 김세필이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

은 ‘공’ 자로, 박상이 이를 기념해 경물시를 지은 것이다. 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 자 모양의 새로운 당은 작은 산을 등지고 있고, 앞에 개울이 있는데, 마치 당긴 활보다 굽어 있다. 또한 물을 막은 모래 독은 마치 용의 등뼈처럼 가로 놓여 있고, 처마와 엇갈린 듯한 새로운 길은 안개가 낀 산까지 솟아 있다. 주변에 있는 밭을 보니, 생강 잎은 들쭉날쭉 피어있고, 국화 싹은 겨우 나온 듯이 보였다. 이러한 경물을 본 나는 술잔을 들고 조용한 일을 찾으면서 세속의 어지러운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



사진 1 공자당의 전경. 공자당은 충북 음성군 생극면 팔성1리에 소재한 지천서원(知川書院)에 있다. 가운데에 있는 세로 기둥이 마치 ‘工’ 자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공자당(工字堂)’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이 시는 총 여덟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여섯 구에서 경물을 읊었고, 마지막 두 구에서 작자의 심리를 적었다. 이로써 이 작품이 경물에 치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앞 네 구에서 먼 곳에 있는 경물을 그렸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구에서 가까이 있는 경물을 그린 점이 눈길을 끈다. 곧, 경물을 주로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감정 이입은 상당히 절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박상은 김세필과 어떤 인연으로 말마리에 있는 공자당에서 시를 짓게 되었을까? 다음 내용을 통해 이 의문을 해결해본다.

2. 박상의 충주 목사 부임부터 말마리 이름이 생기기까지

박상의 자는 창세(昌世)이고, 호는 놀재(訥齋)이며,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박상은 그의 나이 46세(1519, 중종14) 10월경에 어머니 상(喪)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곧이어 11월 15일에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기묘사화는 남곤(南袞)·홍경주(洪景舟) 등 훈구파가 주동을 하여 조광조(趙光祖) 등 신진 사류를 숙청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박상은 어머니의 상에서 이제 막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를 가는 등 화를 입은 모습을 보고 부채(負債) 의식을 지녔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묘사화가 끝난 이후 곧바로 벼슬이 내려졌으나 나아가지 않고, 이듬해 47세 가을에 어사가 되어 호남의 재해(災害)를 시찰하는 것에서 그친다. 이어 48세 봄에 상주 목사(尙州牧使)가 되었다가 같은 해 여름에 충주 목사(忠州牧使)로 부임하는데, 52세 사도시 부정으로 자리 이동을 하기 이전까지 목사의 소임을 다한다.

충주 목사에 부임한 박상은 시간이 나면 인근에 살던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충주를 비롯한 인근에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박상은 공서린(孔瑞麟), 김세필(金世弼), 이약빙(李若氷), 이연경(李延慶), 이자(李紆) 등을 주로 만났다. 공서린은 조광조와 친하다는 이유로 기묘사화 때 투옥되었다가 풀려났고, 김세필은 기묘사화가 끝난 이후 중종(中宗) 앞에서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유춘역(留春驛)에 유배 갔는데, 2년 뒤 사면을 받았으나 복직하지 않고 충주 지비천(知非川, 현 충북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가에 우거하면서 ‘지비옹(知非翁)’이라 자호하였다. 박상은 이때 충주 목사로 부임한 뒤 지비천 가에 살고 있던 김세필을 자주 찾아가 강학을 하는 등 학문을 논의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김세필이 공자당을 지을 때 도움을 주었다. 이약빙은 기묘사화 때 조광조

와 형 이약수(李若水)의 사면을 주청하다가 파직되었고, 이연경은 중종의 신임 덕분에 유배를 가지 않았으나 그 대신 벼슬에서 물러난 뒤 청주 북촌에 살면서 스스로 ‘탄수(灘叟)’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자는 기묘사화를 당한 뒤에 음성(陰城) 음애동(陰崖洞)으로 이거한 뒤 자호를 ‘음애(陰崖)’라 하였다.

이처럼 박상은 충주 목사 시절에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사람들과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였고, 이들 피화인(被禍人)들도 박상에게 의지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이러한 미담은 훗날까지 전해져 허균(許筠)은 다 음과 같이 적었다.

정암 조광조가 북문의 화를 당하자 당시의 선비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공(박상)이 모두 돌보아 주었으므로 김성동(金省洞, 김세필), 이음애(李陰崖, 이자), 이탄수(李灘叟, 이연경) 같은 사람들이 다 가서 의지하였다.

(『성소부부고』 권23, 『성옹지소록인』 중)

인용문 중에 나온 ‘북문의 화’는 기묘사화를 말한다. 허균의 말에 따르면, 기묘사화 이후 많은 선비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당시 충주 목사를 지내고 있던 박상이 모두 돌보아 주었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의지했다고 하였다.

이들 피화인 중에서 박상이 특히 친하게 지낸 사람은 김세필이었다. 박상의 문집 『눌재집』에 김세필과 관련한 시가 총 13제 46수 전하고 있고, 김세필의 문집 『십청집』에 박상과 관련한 시가 총 20제 51수가 전하는데, 이는 다른 피화인들의 시와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다. 이렇듯 친밀했기 때문에 김세필이 지비친 가에 당을 짓는다고 할 때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을 모두 지은 뒤에 당 중앙에 기둥이 있었는데, 마치 그 모습이 ‘工’ 자처럼 보여 이름을 ‘공자당’

이라 하였다. 이 공자당은 그 당시 인근에 살던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사람들을 모으고 규합하는 곳으로 그 의미가 사뭇 컸다.

다음 내용을 통해 당시 공자당이 지닌 의미와 아울러 박상이 펼친 또 다른 선행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김십청(金十淸)이 충주 지비천 가에 집을 지었는데, 선생은 그때 충주 목사로 있었다. 지은 집은 모양이 마치 ‘공’ 자 같았는데, 양쪽에 침실이 있고 중앙의 대청은 강학하는 곳이었다. 그 당시 기묘년 참상의 화를 겪은지라 학문을 꺼리던 터였다. 그런데 오직 선생은 늘 ‘공자당’에 오고가면서 십청, 모재(慕齋)와 함께 도학을 강론함이 더욱 독실하였고, 후학들을 가르쳤다. 그때 모재는 여강에 있어서 충주와는 서로 가까웠다. 매년 봄에 선생은 몸소 여주에 가서 목주 이희보(李希輔)를 만나 관청에서 파는 곡식 200석을 받아 배로 운반하여 두 분과 학도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가을이 되면 또 쌀을 실어다가 자신이 갚아주었고, 매년 그것을 상례로 하였다. 녹봉으로 받은 쌀을 직접 주지 않은 것은 대체로 혐의를 멀리하기 위해서였다.

(『눌재집』 부록 권2, 「서술」)

‘김십청’에서 ‘십청’은 김세필의 호이고, ‘모재’는 김안국(金安國)의 호이다. 김세필은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사림이라고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고, 김안국도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사림 중 한 명이다. 위 인용문은 두 가지 내용을 실었다. 전반부는 공자당과 관련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박상이 당시 여주 목사 이희보에게 곡식 200석을 꾸어다 김세필·김안국 및 학도들에게 나누어주고 가을에 갚았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부분에 “녹봉으로 받은 쌀을 직접 주지 않은 것은 대체로 혐의를 멀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으니, 박상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스레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진 2 말마리 유래의 전설을 적은 표지석. 박상은 김세필을 만나러 갈 때 늘 말을 타고 가서 지비천 가의 무성하게 우거진 숲 아래에 매어두고 공자당까지 걸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말을 매어둔 그곳을 말마리 또는 말갯둑이라 부르게 되었고, 마을 이름도 이에 의거해 현재 '말마리 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박상은 김세필과 우정을 돈독히 하며, 공자당을 지을 때 도움을 주었고, 아울러 먹을 양식도 가져다주었다. 공자당의 주인은 김세필이지만 박상도 이 공자당을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래서 박상은 공자당과 관련해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 앞에서 살핀 「김공석의 새로운 당에 썼는데, 당의 모양은 ‘공’ 자이다1」은 그중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공석의 새로운 당에 썼는데, 당의 모양은 ‘공’ 자이다1」 작품을 통해 박상은 공자당 주변의 멀고 가까운 경물을 자세히 나타내보였으니, 평소 세밀한 관찰을 하지 않았다면 묘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박상은 김세필을 만나러 갈 때 늘 말을 타고 가서 지비천 가의 무성하게 우거진 숲 아래에 매어두고 공자당까지 걸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말을 매어둔 그곳을 말마리 또는 말갯둑이라 부르게 되었고, 마을 이름도 이에 의거해 현재 '말마리 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이처럼 '말마리'라는 이름은 박상과 김세필의 우정에서 나온 이름으로 현재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연연히 이어져 오고 있다.

3. 박상, ‘기묘완인(己卯完人)’이란 칭호를 받다

박상이 세상을 뜬 뒤에 정조(正祖)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그를 평가하였다. 그중에 퇴계 이황의 평가를 적어본다.

눌재는 기묘년의 앞일을 알고 멀리 물러나 있는 식견을 지녀 못 간사한 자들이 일을 꾸밀 때 초연하게 화복에 얽혀들지 않아 마침내 원우(元祐)의 완인(完人)이 되었다.

(『눌재집』 부록 권2, 「서술」)

‘원우’는 중국 송나라 철종의 연호이고, ‘완인’이란 덕행이 완전한 사람을 가리킨다. 철종 때 당쟁이 극심한 때에 유안세(劉安世)가 홀로 바른 길을 지키면서도 끝내 해를 입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 ‘원우완인’이다. 이황이 이 말을 한 이후 박상을 가리켜 ‘기묘완인’이라 부르게 되었으니, 원우완인을 살짝 응용해 만든 말이라 할 수 있다. 유안세는 당시에 매우 강직하여 직언을 잘 했기 때문에 궁궐의 호랑이라는 뜻을 가진 별칭 ‘전상호(殿上虎)’를 얻었는데, 박상도 그에 못지않은 덕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황이 “원우의 완인이 되었다.”라고 했던 것이다.

박상은 기묘사화 때 어머니 상을 막 벗어난 시점이어서 직접 화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화를 당한 사림들과 마음만은 같았다. 이러한 한



사진 3 눌재 박상의 영정. 충주박씨 문간공문중에서 제공하였다.



사진 4 지천서원 입구. 지천서원은 원래 김세필이 살던 초가집에서 유래하였다. 처음 김세필 등 여섯 사람을 배향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뒤에 박상 등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결같은 마음은 충주 목사 시절 기묘년에 화를 입은 사람들을 도울 때 여실히 나타났는데, 그 공간의 중심에 공자당이 있었다. 따라서 말마리 마을에 있는 공자당은 당시 사람들이 마음을 붙여 의지하던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필, 『십청집』
박 상, 『눌재집』
이 자, 『음애집』
이 황, 『퇴계집』
허 균, 『성소부부고』

소쇄원에 그린 48폭의 그림 김인후의 원림시

『소쇄원사십팔영 제1영 작은 정자 난간에 기대어

〔瀟灑園四十八詠1 小亭憑欄〕』

소쇄원의 빼어난 경치

瀟灑園中景

온전히 소쇄정을 이루었다

渾成瀟灑亭

눈 쳐들면 상쾌한 바람 불어오고

擡眸輸颯爽

귀 기울이면 구슬 소리 들린 듯해

側耳聽瓏玲

김인후(金麟厚) 지음(『하서전집』 권5)

1. 김인후가 지은 소쇄원 원림시(園林詩)

이 시는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가 지은 『소쇄원사십팔영』 중의 제1영 작품으로, 시 제목을 ‘작은 정자 난간에 기대어’라고 하였다. 오언절구의 짧은 시로, 그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쇄원은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데, 고스란히 소쇄정을 이루었다. 그 소쇄정 난간에 기대어서 눈을 쳐들어 위를 올려다보면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고,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보면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하다.

소쇄원은 전남 담양군 남면 지실마을에 있는 정원으로, 소쇄처사(瀟灑處士) 양산보(梁山甫, 1503-1557)가 조성하였다. 그 소쇄원에 김인



사진 1 소쇄원에 있는 대봉대(待鳳臺). ‘대봉대’란 ‘봉황새를 기다리는 누대’란 뜻이다. 김인후가 「소쇄원사십팔영」을 지을 당시 이 누대는 ‘소쇄정’이라 하였다.

후가 시를 지을 당시 ‘소쇄정’이라 이름 부른 작은 정자가 있었다. 김인후는 그 소쇄정 난간에 기대어서 눈을 쳐들어 보면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고,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 보면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이 느껴진다고 표현하였다. 곧, 소쇄정 난간에 기대어

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시로 나타냈으니, 시각·청각적 이미지를 아울러 표현한 작품인 것이다. 마지막 절구에서 말한 ‘구슬 소리’는 소쇄정 주변에 흐르는 물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읽는 사람의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소쇄원에 가 보면 소쇄정이라 이름 한 정자는 없고, 그 대신 ‘봉황새를 기다리는 누대’라는 의미의 ‘대봉대(待鳳臺)’만이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소쇄원도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 양산보와 김인후의 아름다운 우정과 인연

양산보의 자는 언진(彦鎭)이요, 호는 소쇄옹(瀟灑翁) 또는 소쇄처사라 했으며,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아버지는 양사원(梁泗源)인데, 면양정(旼仰亭) 송순(宋純)의 할아버지 송복천(宋福川)이 장인이다. 따라서 송순이 양산보의 외종형이 되는 셈이다. 또한 양산보는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과 6촌간이요, 김인후와 사돈 사이였다.

양산보는 어려서부터 원대한 꿈을 지니고 있었고, 아버지 양사원은

그런 아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15세(1517, 중종12) 때 양산보를 서울에 있는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에게 데리고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조광조는 양사원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양산보에게 『소학』 책을 주며 읽을 것을 권유한다. 『소학』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와 원리가 집약된 수신서(修身書)로, 조광조는 스승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이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2년 뒤인 1519년 11월 기묘사화가 일어나 스승 조광조가 전남 능성(綾城, 현 전남 화순군 능주면)으로 유배 가면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원대한 꿈을 지닌 채 조광조를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닦으려 했던 양산보가 느꼈을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かを 상상해본다. 양산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낙향하는데, 이때의 상황을 이민서(李敏敍)는 『소쇄원양공행장행장』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때 선생의 나이가 심히 어렸다. 마침내 벼슬에 나갈 뜻을 끊고 서석산 아래 수석이 빼어난 원림에 집을 지어 두문불출 한가롭게 살면서 그 사는 곳을 ‘소쇄원’이라 이름하고, 스스로 ‘소쇄옹’이라 불렀다.

(『소쇄원사실』 권3, 「소쇄원양공행장」 중에서)



사진 2 소쇄원에서 제월당(霽月堂)에 올라가는 입구에 적힌 ‘소쇄처사양공지려(潘瀟處士梁公之廬)’ 한자어. ‘소쇄처사양공지려’는 ‘소쇄처사 양산보의 집’이라는 뜻이다.

『소쇄원사실』 등의 기록에 따르면, 소쇄원 터는 양사원이 잡기 시작했다고 한다. 양산보는 기묘사화를 겪은 뒤에 아버지가 마련한 터에 원림을 지어 ‘소쇄원’이라 이름하고, 자신을 가리켜 ‘소쇄옹’이라 했다. 한자 ‘소쇄(瀟灑)’란 ‘깨끗하고 깨끗하다’는 뜻이니, 앞으로 인생을 어

떻게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소쇄원은 호남사람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달래주고, 학문을 마음껏 토론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 김인후는 양산보와 관련지어 볼 때 단연 돋보인다. 다음의 기록은 그 사실을 말해준다.

선생(양산보)은 하서와 더불어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좋아하여 아들딸로 시집 장가를 들게 하니 오가며 강설하되 늙어서도 그만 두지 않았다. 늘 서로 보면 기뻐하고, 의리를 토론하기를 매우 깊게 하며, 고금의 사실을 뚜렷이 하였다. 어떤 날은 술을 마시며 시부(詩賦)를 짓되 밤낮을 다해도 싫어하지 않았다. 하서가 소쇄원에 오면 여러 달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었다.

(『소쇄원사실』 권3, 「소쇄원양공행장」 중에서)

위 인용문 내용을 통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양산보와 김인후가 아들딸을 시집보내고 장가보내 사돈 사이가 되었고, 둘째 의리를 토론하기를 매우 깊이 하고 시부를 밤낮을 다해 지었으며, 셋째 김인후가 소쇄원에 가면 여러 달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인후는 기묘사화로 인해 화순 동북으로 유배 갔던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에게 찾아가 학문을 연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김인후는 18세였고, 양산보는 25세였다. 양산보는 김인후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영특한 후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김인후는 양산보를 언제든지 소쇄원에 가면 서슴없이 받아주는 선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인후는 장성(長城) 집에서 출발해 동북에 계신 최산두 선생에게 찾아갔는데, 중간에 있는 소쇄원에 늘 들러 작게는 안부를 묻고 크게는 학문을 토론했던 것이다. 양산보와 마음이 맞지 않고 또 양산보가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았다면, 김인후가 소쇄원에 들러 여러 달 동안 집에 돌아가는



사진 3 소쇄원에 있는 광풍각(光風閣). 양산보는 평소 북송의 학자 주돈이(周敦頤)를 존경했다. 소쇄원에 광풍각 외에 제월당이 있는데, '광풍'과 '제월'은 송나라의 문인 황정견(黃庭堅)이 주돈이를 예찬한 “용릉 주무숙은 그 인품이 고상하고 마음이 대범한 것이 마치 맑은 날의 바람과 비 갠 날의 달과 같다.〔春陵周茂叔 其人品甚高 胸懷灑落 如光風霽月〕”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것을 잊을 수 있었겠는가. 양산보와 김인후의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요, 그 우정은 마침내 사돈의 인연을 맺는 데까지 나아갔다.

3. 김인후는 어찌 이렇게 소쇄원을 잘 그려냈을까?

소쇄원은 자연에 인공을 가미한 정원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손길을 더한 곳이기엔 건물과 경물의 배치가 어색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김인후는 소쇄원에 가서 여러 달 머무르는 동안 그곳에 있는 자연물과 인공물 모두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쇄원 관련 한시 작품 총 78수를 지었다. 물론 그 78수 중에 「소쇄원사십팔영」이 들어가 있는데, 소쇄원 주인이 김인후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작품을 지었다. 이러니 “소쇄원을 조성한 사람은 양산보이고, 그 소쇄원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김인후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김인후가 왜 어떤 이유에서 「소쇄원사십팔영」을 지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다. 그렇다고 소쇄원을 드나들다가 시심이 우연히 일어 「소쇄원사십팔영」을 지은 것 같지는 않다. 우연이라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소쇄원사십팔영」 전체 작품을 놓고 보면, 큰 우주의 질서를 반영한 듯한 느낌을 주는 시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김인후는 「소쇄원사십팔영」을 짓기 시작하여 끝마칠 때까지 여기저기 배치를 하고, 작품의 순서도 바뀌가면서 완성해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소쇄원을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까도 고민했을 것이다. 멋지고 아름다운 것만 알릴 것인가? 아니면 작고 보잘 것 없으나 소쇄원을 꾸며주는 풀, 나무, 바위, 물 등을 대상으로 시를 읊을 것인가? 김인후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소쇄원사십팔영」 속에 등장하는 인공과 자연물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작은 정자(소정[小亭]), 글방(문방[文房]), 물[水], 거북바위[오암(鰲巖)], 물고기[魚], 물방아[수대(水碓)], 아슬한 다리[위교(危橋)], 바람소리[풍향(風響)], 매대(梅臺), 달[月], 석가산[假山], 소나무와 바위[송석(松石)], 푸른 이끼[창선(蒼蘚)], 평상 바위[담암(榻巖)], 긴 섬돌[수계(脩階)], 왜나무[괴(槐)], 조담(槽潭), 끊긴 다리[단교(斷橋)], 소나무와 국화[송국(松菊)], 외로운 매화[고매(孤梅)], 긴 대나무[수황(脩篁)], 대나무 뿌리[죽근(竹根)], 새[금(禽)], 대밭[총균(叢筠)], 오리[압(鴨)], 창포[창포(菖蒲)], 사계화[사계(四季)], 복사꽃 언덕[도오(桃塢)], 오동나무 대[동대(桐臺)], 폭포수[사폭(瀉瀑)], 버드나무 물가[류정(柳汀)], 연[부거(芙蕖)], 순채싹[순아(蓴芽)], 배롱나무[자미(紫薇)], 파초(芭蕉), 단풍(丹楓), 눈[설(雪)], 붉은 치자[홍치(紅樞)], 애양단[양단(陽壇)]

김인후는 소쇄원에서 만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인공과 자연물을 시로 형상화하여 「소쇄원사십팔영」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품에서 생동감을 느끼게 하였다. 때문에 김인후가 시를 통해 나타낸 풀과 물, 나무, 바위, 새집 등은 더 이상 일반적인 것들이



사진 4 소쇄원 제월당에 걸린 「소쇄원사십팔영」 시

아니고, 특별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같은 물도 ‘폭포수’ 또는 ‘굽이도는 물’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었는데, 김인후가 사물을 자세히 보고 관찰하지 않았다면 「소쇄원사십팔영」과 같은 훌륭한 작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김인후가 어찌 이렇게 소쇄원을 잘 그려냈는지 신비로울 뿐이다.

4. 후대까지 예찬된 「소쇄원사십팔영」

시냇물이 집의 동쪽으로부터 흘러왔는데, 담장을 뚫고 끌어들여 졸졸 흐르는 물줄기가 뜰 아래로 흘러간다. 그 위에는 작은 다리가 있고, 다리 아래로는 바위가 모퉁하게 생겨 ‘조담(槽潭)’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 작은 폭포가 되어 쏟아 내리니 그 소리가 영롱하여 거문고를 울리는 듯하였다. 조담의 위에는 노송이 굽어서 쓰러지듯 덮어 연못을 걸쳐 비껴있다. 작은 폭포의 서쪽에는 아담한 서재가 있으니 완전히 화방(畵舫)과 비슷하였다. 그 남쪽에는 돌을 높게 쌓아 날개를 편 듯 작은 정자를 세웠는데, 형상이 일산

(日傘)과 같았다. 처마 앞에는 벽오동이 서 있는데, 고목이 되어 가지가 반쯤 썩어 있었다. 정자 아래로는 작은 연못을 파고 나무 흠통으로 시냇물을 이끌어 댔다. 연못의 서쪽에 죽림이 있어 큰 대나무 백여 그루가 구슬과 같이 서있어 완상할 만하였다. 죽림 서쪽에 연지(蓮池)가 있는데, 돌레를 둘로 쌓고 시냇물을 이끌어 작은 연못을 이루었다. 죽림 아래를 거쳐 연지 북쪽을 지나니 또 물방아가 있어 보는 것마다 소쇄하지 않음이 없었다. 김하서의 48영에 그 아름다운 풍치가 모두 그려져 있다.

(고경명, 『유서석록』 중에서)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은 그의 나이 42세(1574, 선조7)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무등산을 유람한 뒤에 「유서석록(遊瑞石錄)」이라는 유산기를 남겼다. 고경명은 5일 동안 무등산을 유람하였는데, 마지막 날 소쇄원을 들러 그곳의 모습을 스케치하였다. 위 글을 보면, 인상적인 말들이 몇 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김하서의 48영에 그 아름다운 풍치가 모두 그려져 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소쇄원사십팔영」에 대한 큰 예찬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쇄원을 구석구석 잘 알려면 반드시 「소쇄원사십팔영시」를 읽어야 한다고 말이 전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소쇄원사실』

고경명, 『유서석록』

김인후, 『하서전집』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할미디어, 2007.

박준규·최한선, 『시와 그림으로 수놓은 소쇄원사십팔경』, 태학사, 2000.

천득염, 『은일과 사유의 공간 소쇄원』, 심미안, 2017.

죄 지은 보리·그리고 그의 항변 위백규의 소회시

「죄맥(罪麥)」

곡식이라 불린 것이 수백 가지인데
가증스러운 것은 오직 보리보다
수많은 나쁜 자질로 속여서
궁핍함 틈타 백성 식량에 참여했구나
(이하 후략)

號穀數爲百
可憎者惟麥
謬以衆惡質
承乏參民食

위백규(魏伯珪) 지음(『존재전서』 권1)

1. 위백규가 지은 소회시(所懷詩)

이 시는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 1727-1798)가 그의 나이 41세 때 지은 「죄맥」의 앞 4구이다. 위백규의 자는 자화(子華)이고, 본관은 장흥(長興)이며, 존재는 그의 호이다. 장흥부 고읍방(古邑坊) 계춘동(桂春洞)에서 아버지 진사 위문덕(魏文德)과 오일삼(吳日三)의 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25세 때 충청도 덕산에 살던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를 찾아가 사제 관계를 맺었고,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글 「정현신보(政絃新譜)」(33세), 「봉사(封事)」(50세), 「만언봉사(萬言封事)」(70세) 등을 썼다. 이렇듯 현실에 바탕을 둔 개혁 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위백규를 18세기 호남을 대표하는 실학자 중 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다.

「죄맥」은 총 84구로 이루어진 장편시인데, 인용한 4구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새겨보면 다음과 같다.

곡식이라 불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 미움 받고 있는 것은 보리뿐이다. 보리는 수많은 나쁜 자질로 곡식 세계를 속여서 궁핍해 하는 백성들 사이 식량에 참여하였다.

위백규는 수백 가지의 곡식 중에서 보리만 미움을 받고 있다 하였다. 그리고 보리는 타고난 본래 나쁜 자질로 수백 가지의 곡식들을 속여 궁핍한 백성들의 식량에 참여했다고 하였다. 여기서 잠깐 작품 원문에 나온 한자 ‘증(憎)’과 ‘중악질(衆惡質)’의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 이 두 한자를 통해 위백규의 평소 보리 인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증(憎)’은 “미움을 받는다”는 뜻이고, ‘중악질(衆惡質)’은 “온갖 나쁜 자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이러한 한자를 사용한 것을 보면, 위백규는 평소 보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토로한 시가「죄맥」이라 할 수 있다.



사진 1 「존재전서」 권1에 실려 있는 「죄맥」시 앞부분. 시 제목 다음에 작은 글씨로 '정해하(丁亥夏)'라 적혀 있다. 정해년은 위백규의 나이 41세 때이다.

2. 왜, 보리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위백규는 어떤 점에서 보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인가?
다음의 「죄맥」 일부분을 읽어보자.

(전략)

입에서 이미 감내하기 어려웠으나	入口已難耐
아래 가슴에서 더욱 사특함 드러내어	下膈尤作慝
설사 기운은 방귀 되어 악취 뿜어내니	泄氣助溽薰
썩은 냄새가 발동해 얼굴을 뒤덮고	敗臭發面渥
꼭꼭 찌르며 묶은 설사 일으켜서	乖刺作痢泄
급히 쫓아 변소로 내 모니	促迫驅溷廁
노인은 다리 저려서 마비되고	老人痿成痺
건강한 아이도 수척해져서 뼈만 앙상하다	健兒瘦脫骼

(후략)

(『존재전서』 권1, 「죄맥」 중에서)

보리밥을 먹은 다음에 일어나는 생리적인 형상을 재미있게 나타내었다. 보리밥은 쌀밥에 비할 때 겉이 까칠까칠하여 입에 넣어 오물오물 씹으면, 쉽게 씹어지지 않는다. 위 시의 처음 부분에서 “입에서 이미 감내하기 어려웠으나”라고 말한 것은 입에 들어간 보리밥이 쉽게 씹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입에서 씹힌 보리밥은 점점 가슴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는데, 아래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사특함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바로 위장으로 내려갈수록 소화가 안 되는 모습을 “사특함을 드러내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 소화가 안 되어 마침내 설사를 하기에 이르고, 또한 방귀 되어 악취를 뿜어내니 마치 썩은 듯한 냄새가 발동해 얼



사진 2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마을에 소재한 위백규의 생가 전경.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제 161호로 지정되었다.

굴을 뒤엎는다고 하였다. 이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묶은 설사를 하러 급히 변소로 향하는데, 이때 노인이라면 다리가 저려 마비되고, 건강한 아이라도 수척해져서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 하였다. 다시 말해 「죄맥」 시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보리를 밥으로 지어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니, 이것이 보리의 죄가 된 셈이다.

「죄맥」 시는 보리밥을 먹은 다음의 일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나타내었다. 곧, 표현이 사실적(寫實的)이라 말할 수 있다. 사실적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그려 내는 것을 말한다. 즉, 위백규는 장흥의 향촌 사족이기는 했으나 직접 농사를 지어야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 따라서 쌀밥보다는 보리밥을 더 자주 먹었을 것인데, 이로써 「죄맥」을 통해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3. 보리는 죄 없다 스스로 항변하는데

이렇듯 「죄맥」에서 보리는 완전히 죄를 지은 물건 취급을 당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고도 죄를 지은 물건 취급을 당했으니, 보리는 억울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위백규는 「죄맥」을 이어 146구로 이루어진 「맥대(麥對)」라는 작품을 지었는데, 시 제목을 풀어본다면 “보리의 대답”이다. 「죄맥」을 통해 보리를 죄 지은 물건 취급을 한 위백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 이번에는 「맥대」에서 180도 태도를 바꾸어 보리의 항변을 전달하고 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자.

(전략)

사람들 모두 배가 청결하지 못해서
더러움 쌓아두니 열병과 종기 되었소
내가 어찌 소인과 같아서
슬그머니 폐장 가릴 리 있겠는가
노인이 마비되고 젊은이 수척한 것은
모두 찌는 더위에 상한 탓이지
실로 설사로 내장이 젖은 탓 아니니
고황에 병든 사람 자주 보겠소

人皆腹不潔
蓄穢成疢痒
我豈小人如
厭然掩肺臟
老癯與健瘦
都由暑溽戕
苟非泄內濕
多見病膏肓

(후략)

(『존재전서』 권1, 「맥대」 중에서)

2장에서 인용한 「죄맥」 시 부분을 읽고, 곧바로 이 「맥대」 시를 읽어보면,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보리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청결하지 못해 더러운 찌꺼기를 쌓다 보니 병이 들었을 뿐 내가 병이 들게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노인이 마비되고, 건강한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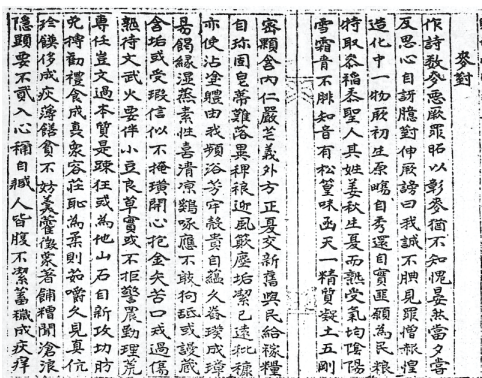


사진 3 「존재전서」 권1에 실려 있는 「맥대」 시 앞부분

가 수척해진 것은 모두 찌는 듯한 더위 때문이다. 설사로 인해 내장이 젖어 노인이 마비되고 건강한 아이가 수척해진 것이 아니며, 고향에 병든 사람을 자주 보겠다.”라고 하였다.

「죄맥」시의 보리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처지에 있었다면, 「맥대」시에 등장한 보리는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열심히 말하고 있다. 곧, 작자 위백규는 「맥대」시에서 보리를 의인화시켰는데, 우화적(寓話的) 수사법을 활용한 것이다. 마치 보리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각하여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듯이 나타내었다.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고향’은 생체적으로는 심장의 아래쪽과 횡격막의 윗부분 사이를 가리킨다. 그런데 작자는 “고향에 병든 사람 자주 보겠소”라고 하였다. 원래 “병이 고향 사이에 들어가면 치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즉, 가난에 찌들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 고향에 병든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와 같이 위백규는 당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말하지 않고, 보리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렸다.

4. 위백규, 보리를 통해 소신을 밝히다

「맥대」시를 조금 더 인용해보겠다. 다음의 「맥대」시를 읽어봐야 위백규가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한 내용을 진정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

어찌 고금의 일을 보지 못하는가	豈不見古今
뜻밖의 화는 고량진미에서 생겼음을	奇禍生膏粱
쌀밥 먹는 것 매우 아름다운 일이나	殮玉非不美
사치에 길들여지면 재앙을 이룬다네	馴侈立成殃

(중략)

그대는 거친 밥을 부끄러워 말고	君無恥惡食
선을 위해 더욱더 힘을 쏟아라	爲善彌自獲
이미 성현 배우는 무리가 되었으니	既爲學聖徒
스스로의 처지를 어찌 헤아리지 않는가	自處胡不量

(후략)

(『존재전서』 권1, 「맥대」 중에서)

보리는 말하기를 “고금의 일을 보면, 뜻밖에 일어난 화는 고량진미에서 생겼다. 쌀밥 먹는 것 매우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사치에 길들여지면 결국 재앙을 만난다. 그러니 그대는 거친 밥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을 위해 더욱더 힘을 쏟아라. 이미 성현 무리에 들어간 그대는 스스로의 처지를 왜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보리밥이 아닌 쌀밥을 먹는 일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러다보면, 결국 재앙을 만날 수 있다 하였다. 다시 말해 음식에 신경 쓰지 말고, 성인의 무리에 든 사람으로서 선을 위해 힘을 더욱더 쏟아라 말하였다. 이는 보리가 한 말이기



사진 4 전남 장흥군 충열소공원에 세워진 '존재 위백규 선생' 동상

는 하나 사실 작가 위백규가 스스로에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리 스스로 죄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내용으로 시작한 「맥대」, 위백규는 이 「맥대」 시를 통해 보리의 항변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보리는 같은 농작물이지만 벼에 비할 때 통상 천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로 일반 서민들이 부르는 노동요 중의 하나인 보리타작 소리와 같은 민요에 주로 쓰였다. 그런데 위백규는 그러한 보리를 소재 삼아 「죄맥」, 「맥대」, 「청맥행(靑麥行)」 등의 작품을 지었다. 유학자의 입장에서 보리를 소재로 시를 짓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사실 위백규 삶 자체가 농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에 이러한 점을 따져보면 그리 낯설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장자』

위백규, 『존재전서』

위백규, 『존재집』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18세기 향촌사족층의 삶과 문학-』, 이화문화사, 1995.

그림자도 쉬는 곳에서 읊은 시 스무 편 임억령의 누정 제영시

『식영정 제1영 ‘서석산의 한가한 구름’〔息影亭1 瑞石閑雲〕』

몽게몽게 피어오른 산마루 구름	溶溶嶺上雲
조금 나왔다 되레 사라져버리네	纔出而還斂
그 누가 구름처럼 하릴없을는지	無事孰如雲
서로 바라봐도 둘 다 싫지 않네	相看兩不厭

임억령(林億齡) 지음(『석천집』 5)

1. 임억령이 지은 누정 제영시(樓亭題詠詩)

이 시는 임억령(1496-1568)이 지은 「식영정20영」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식영정은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소재한 누정으로, 그 일원은 2009년에 명승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식영정 20영」의 시 종류를 굳이 나눈다면 누정 제영시라 할 수 있다. ‘제영시’란 제목을 붙여가며 시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어떤 특정한 공간을 대상으로 그 주변의 승경을 읊었으며, 그 작품 수는 제한을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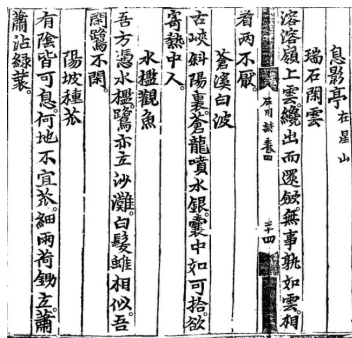


사진 1 『석천집』 소재 「식영정20영」 앞부분. 한국고전번역원 원본이미지 캡처

지 않았다. 임억령은 식영정 주변의 승경을 총 20가지로 나누어 읊었는데, ‘서석산의 한가한 구름[瑞石閑雲]’ 시는 그 첫 번째에 해당한다. 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으로 다시 옮겨본다.

서석산의 꼭대기 구름이 조금 뭉게뭉게 피어오른 듯하더니 어느 순간 또 다시 사라져버렸다. 우리 사람들 중에 그 누가 구름처럼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식영정과 서석산이 서로 바라보아도 싫지 않다.

시 제목의 ‘서석산’은 물론 무등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1구에서 말한 ‘산마루’는 무등산 꼭대기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등산 꼭대기에서 구름이 조금 뭉게뭉게 피어올랐다가 또 다시 감춘 모습을 나타내었다. 곧, 아무런 근심 없이 한가롭게 노니는 구름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작자는 이러한 한가로운 구름을 사람에 견주어 3구에서 “그 누가 구름처럼 하릴없을는지”라고 감탄하였다. 한가한 구름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 서로 대비시켰다. 다시 말해 1-2구에서 무등산 꼭대기의 한가한 구름을 형용했다면, 3구에서 시상을 바꾸어 구름을 사람에 견준 것이다. 이어 마지막 구에서 “서로 바라봐도 둘 다 싫지 않네”라고 말하였다. 이 구절은 당나라의 시인 이백(李白)이 지은 시 「경정산에 홀로 앉아[獨坐敬亭山]」의 3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이백과 경정산이 서로 바라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은 것처럼 식영정과 무등산이 서로 바라보아도 싫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즉, 식영정과 무등산에 감정을 이입시킨 것이다.

한편, 「식영정20영」의 첫 번째 작품을 뺀 나머지 열아홉 수의 시 제목은 제2영 ‘창계의 흰 물결[蒼溪白波]’, 제3영 ‘물가 난간에서 물고기를 바라보며[水檻觀魚]’, 제4영 ‘양지 바른 언덕에 오이를 심으며[陽坡種菰]’, 제5영 ‘벽오동에 비친 서늘한 달[碧梧涼月]’, 제6영 ‘푸른 솔에 쌓인 갠 눈[蒼松晴雪]’, 제7영 ‘조대의 두 그루 소나무[釣臺雙松]’, 제

8영 ‘환벽당 앞의 신령한 웅덩이[環碧靈湫]’, 제9영 ‘송담에 배를 띄우며[松潭泛舟]’, 제10영 ‘석정에서 바람을 쐬며[石亭納涼]’, 제11영 ‘학마을의 저녁 연기[鶴洞暮煙]’, 제12영 ‘들판에서 들리는 목동의 피리소리[平郊牧笛]’, 제13영 ‘짧은 다리 돌아가는 중[短橋歸僧]’, 제14영 ‘흰 모래에서 조는 오리[白沙睡鴨]’, 제15영 ‘가마우지 바위[鷓鴣巖]’, 제16영 ‘배롱나무꽃에 비친 여울[紫薇灘]’, 제17영 ‘복숭아꽃이 핀 길[桃花徑]’, 제18영 ‘향기로운 풀 돋은 모래톱[芳草洲]’, 제19영 ‘연꽃 핀 연못[芙蓉塘]’, 제20영 ‘신선이 노니는 마을[仙遊洞]’ 등이다. 이러한 시제를 보면, 임억령은 식영정 주변에 펼쳐진 원근의 승경을 거의 총 망라해 『식영정20영』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식영정, 그 이름에 드리운 장자(莊子) 사상

또 일찍이 누정을 하나 얹어 석천에게 미루어 드리고 아침저녁으로 모시고 따르며 강학과 토론을 서로 극진히 하였으니, 즉 식영정이 이것이다.

(김성원, 『서하당유고』하, 「연보」 36세 조의 일부분)

위는 김성원(金成遠, 1525-1597)의 문집 『서하당유고』 「연보」 36세 조에 나온 내용의 일부분이다. 김성원의 자는 강숙(岡叔)이요, 호는 서하(棲霞)이며,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광주 충효리에서 태어났다. 임억령과 김인후(金麟厚)를 스승으로 모셨고, 정철(鄭澈)·기대승(奇大升)·고경명(高敬命) 등 당대 유명 문인들과 친하게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동북 현감을 역임하면서 군량과 의병을 모으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조카 김덕령(金德齡)이 무고로 세상을 뜨자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둔하였다. 또한 1597년 정유재란 때 어머니를 업고 피난 가던 중에 성모산(聖母山)에서 왜군을 만나 어머니를 보호하다 그만 살해

당하였다. 그래서 이후 성모산은 ‘어머니를 보호한 산’이라는 의미를 담은 모호산(母護山)이라 불리었다.

이러한 김성원이 36세(1560, 명종15)라는 한창 젊은 나이에 누정을 하나 얹어 석천에게 드리고, 아침저녁으로 모시고 따르며 강학과 토론을 극진히 했는데, 그 누정 이름이 바로 ‘식영정’이라는 것이 위 『서하당유고』에 실린 내용이다. 위 글에서 말한 석천은 바로 임억령의 호이다. 곧, 김성원은 누정 하나를 얹어 임억령에게 드렸을 뿐 아니라 밤낮으로 스승의 예우를 다했던 것이다.

여기서 임억령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임억령의 자는 대수(大樹)요,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으며, 박상(朴祥)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혔다. 30세에 문과에 합격한 뒤 동북 현감, 부교리, 지평, 사간, 전한, 대사간, 금산 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금산 군수를 수



사진 2 측면에서 바라본 식영정 모습(왼쪽)과 전서체로 쓴 현판 글씨(오른쪽 하단)

행하고 있을 때인 1545년(명종즉위년) 을사사화가 일어났는데, 이때 동생 백령(百齡)이 윤원형(尹元衡) 등이 속한 소윤(小尹) 일파에 가담하여 대윤(大尹)에 속한 많은 선비들에게 피해를 입히자 그만 벼슬에서 물러난다. 이후 고향 해남에서 머물다 복직이 되어 동부승지, 강원도 관찰사를 이어 62세 때 담양 부사가 되었다. 임억령은 이 담양 부사 시절에 김성원을 본격적으로 만난다. 그리고 급기야 첩실 양씨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을 김성원에게 시집보낸다. 『서하당유고』 「연보」 33세 조에 따르면, “임억령이 김성원에게 망년지교(忘年之交)를 허락했다.”는 말이 나온다. 망년지교란 “나이를 따지지 않고 사귄다”는 뜻이니, 임억령이 김성원을 어느 정도로 아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성원은 임억령을 장인 겸 스승으로 모시며 예의를 극진히 하였고, 반면 임억령은 사위이자 제자인 김성원을 권위로써 대하기보다는 마치 친구처럼 대하였다. 사실 임억령과 김성원은 29년의 나이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억령은 이러한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김성원을 마치 친구처럼 허물없이 대했던 것이다.

이렇듯 임억령이 김성원에게 망년지교를 허락한 3년 뒤 김성원이 자신이 노년에 지내려고 서하당(棲霞堂)을 짓고, 또 이어 누정 하나를 지어 장인 어르신인 임억령에게 드렸다. 그러면서 어차피 장인 어르신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누정의 이름을 임억령에게 지어보시라 요청한다. 그런데 그 까닭은 잘 모르겠으나 임억령은 김성원에게 누정을 받은 즉시 그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3년 뒤인 68세(1563년, 명종18) 때 「식영정기」를 통해 누정의 이름을 ‘식영’이라 정한다라고 널리 알린다. 그리고 이 기문을 이어 「식영정20영」을 지었다.

임억령은 「식영정기」의 첫 부분에서 우선 “김군 강숙은 나의 친구이다.”라고 말한다. 망년지교를 허락한 사위 김성원을 ‘친구’라고 공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식영정기」를 통해 왜, 누정 이름을 ‘식영’이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네는 장씨(莊氏, 장주)의 말을 들어보았는가? 장주가 말하기를 “옛날에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햇빛 아래에서 달려 그 달리기를 더욱더 급히 하자 그림자도 끝내 쉬지 않다가 나무 그늘 아래에 이르자 그림자도 홀연히 보이지 않았다.” 하네. (중략) 흐름을 타면 나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그치는데, 가고 멈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내가 숲으로 들어온 것은 한갓 그림자를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네. 내가 시원하게 바람을 타고, 조물주와 더불어 무리가 되어서 궁벽한 시골의 들판에서 노닐면 거꾸로 비친 그림자도 없어져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으리니, 이름을 ‘식영’이라 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임억령, 『석천집』 5, 『식영정기』의 일부분)

임억령은 처음에 『장자』 『어부』에 나온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발자국을 싫어한다’는 의미인 외영오적(畏影惡迹) 이야기를 말한 뒤에 왜, 누정의 이름을 ‘식영’이라 하면 좋을지 그 이유를 언급하였다. 임억령은 세상살이에서 가고 멈추는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숲에 들어온 것은 한갓 그림자를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어 거꾸로 비친 그림자, 즉 도영(倒影)을 말한다. 도영은 물(水) 등에 비추어 생기는 그림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임

억령은 숲에 들어온 까닭은 그림자를 쉬게 하고, 거꾸로 비친 그림자까지 없애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한 것이다. 결국 임억령이 말한 그림자는 세상에 남기는 자취라 할 수 있으니, 그림자를 쉬게 한다는 뜻인 ‘식영’은 한 가롭게 은거하며 여러 흔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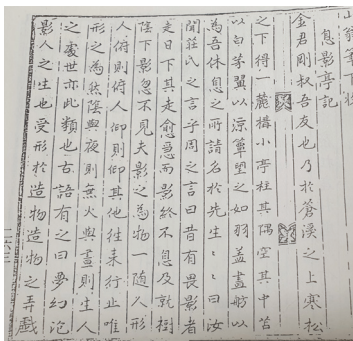


사진 3 『석천집』 5에 수록된 『식영정기』 앞부분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임억령은 문과에 합격한 뒤 여러 내외직의 벼슬을 거쳐 담양 부사에 이르렀다. 그리고 사회기를 관통해 살았던 호남사람 중 한 사람이다. 특히,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는 임억령이 직접 화를 당하지 않았으나 동생 백령이 사람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이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68세에 이른 임억령은 세상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세속의 흔적이란 탈속하고 나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탈속의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아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을 그림자를 들어 말했던 것이다.

3. 임억령을 이어 김성원·고경명·정철이 시를 짓다

임억령이 「식영정20영」을 짓자 그 운을 끌어다 같은 시 제목으로 김성원·고경명·정철 등이 「식영정20영」을 각각 지었다. 세 사람 모두 식영정과 관련한 다수의 작품을 지었는데, 특히 정철은 「식영정20영」의 영향을 받아 가사작품 「성산별곡」도 지었다. 이 중에서 김성원이 지은 「식영정20영」의 첫 번째 작품 ‘서석산의 한가한 구름〔瑞石閑雲〕’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연히 산 위 따라 날아가더니	偶從山上飛
되레 산 속 향해 사라져버리네	還向山中斂
나른한 자취는 절로 무심하니	倦跡自無心
한가롭게 보어도 싫지 않구나	悠悠看不厭

(김성원, 『서하당유고』 상, 「경차석천선생운 식영정이십영」 ‘서석한운’)



사진 4 식영정 뒤뜰에 있는 「성산별곡」 시비

1-2구에서 무등산의 구름이 이리저리 떠다니며 변화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3-4구에서 그 구름을 바라본 작자의 느낌을 말하였다. 임억령이 지은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시 내용을 안배한 것이다. 임억령의 시가 그러했는데, 김성원의 시도 오연절구 작은 시이지만 식영정에서 바라다

본 무등산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눈에 보이는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묘사하는 한편,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낸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임억령·김성원·고경명·정철 등 네 사람을 가리켜 ‘식영정사선(息影亭四仙)’이라 일컫는다. 이 네 사람이 마치 식영정에서 신선다운 면모를 보여 이런 호칭을 붙인 것일까? 지금의 식영정에서 옛날의 아름다운 승경을 고스란히 찾을 수는 없으나 수많은 문인들이 드나들며 시심(詩心)을 펼쳤다는 점에서 장소의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원, 『서하당유고』
 박준규·최한선, 『속세를 털어버린 식영정』, 태학사, 2001.
 임억령, 『석천시집』, 경인문화사, 1996.
 임억령, 『석천집』, 여강출판사, 1989.
 임준성, 광주문화재단 누정총서5, 『식영정』, 심미안, 2018.



호남학 산책

명시 초대석

호남인, 시 속에 감성을 담다

인쇄 2022.10.27

발행 2022.10.31

저자 박명희

발행인 천득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s://www.hiks.or.kr>

편집·제작 (주)스케치북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7-4

T 062-714-1776 E sketchboook@naver.com

비매품/무료

ISBN 979-11-90608-40-4

ISBN 979-11-90608-37-4 (세트)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저자에게 있습니다.